

파나마

정보수정일자: 2012. 09. 24.

작성처: 파나마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8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10
- 주요 산업 동향 /14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6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9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1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4
 - 대한수입규제동향 /26
 - 관세제도 /27
 - 주요인증제도 /29
 - 지적재산권 /31
 - 통관운송 /32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6
- 외국기업 투자동향 /38
- 우리기업 투자동향 /3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1
- 진출형태별 절차 /45
- 투자입지여건 /5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9
- 조세제도 /62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6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7
- 물가정보 /72
- 바이어발굴 /75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7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9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0
- 이주정착 가이드 /83
- 출장가이드 /87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03
- 유관기관 웹사이트 /106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파나마(República de Panamá)
위치	중미(콜롬비아 바로 위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
면적	75,517km ² (한반도의 약 1/3)
기후	열대우림 기후(건기: 11월 말~4월, 우기: 5월~11월 말)
수도	파나마시티
인구	340만명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주요도시	파나마시티(130만 명, San Miguelito 34만 명 포함) 콜론(25만 명), 다비드(15만 명) 등
민족	혼혈(메스티소 등 65%), 흑인(14%), 백인(10%), 인디안(6%) 중국계(5%)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93%), 신교(6%), 기타(1%)
건국(독립)일	1903.11.3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 Mr. Ricardo Martinelli ○ 소속정당: Cambio Democratico(CD) ○ 당선일: '09.5.3 ○ 취임일: '09.7.1 ○ 임기: 5년

자료: 파나마정부, 파나마감사원

나. 경제 지표(2012년 9월 기준)

GDP	23,254백만달러(2011년 연말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10.6%
1인당 GDP	7,632달러(2011년 연간 기준)
실업률	4.5% (2011년 연말 기준)
물가상승률	5.9% (2011년 연말 기준)
화폐단위	Balboa(미국 달러 사용국으로 명목상 호칭만 발보아로 칭함)
환율	US\$1 = 1 Balboa
외채	122억 달러(예상)
산업구조(%)	운수송.통신(24.1%), 도소매(15.2%), 부동산(5.1%), 금융업(8.1%), 제조업(5.2%), 농업(2.9%), 요식업(2.8%), 공공서비스업(2.6%), 수산업(0.8%), 광업(1.5%) 등
교역 규모	○ 수출: 7.9억 달러(12년 9월 현재 '11년 추정치. 확정치는 미공개) ○ 수입: 113.4억 달러(12년 9월 현재 '11년 추정치. 확정치는 미공개)
교역품	○ 수출: 금, 바나나, 고철, 새우,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 ○ 수입: 연료(디젤, 항공유, 가솔린), 의약품, 자동차, 중유 등

자료: 파나마감사원(2012년 9월 발표 통계), EIU(2012년 9월 통계)

다. 한-파나마 관계

체결협정	○ 외교관계 수립: 1962. 9 ○ 문화협정: 1974.6 서명, 1975.1 발효 ○ 항공협정: 1979.12 서명, 1982.10 발효 ○ 투자보장협정: 2001.7 서명, 2002. 2 발효 ○ 사증면제협정: 2001.7 서명, 2002. 2 발효 ○ 파나마운하 영구중립의정서 가입: 1980.11.4 ○ 봉사단 파견 협정: 2006. 12. 발표 ○ 과학기술협력협정: 2010. 6. 28 서명 ○ 이중과세방지협정: 2011. 4. 1 발효
교역 규모	우리나라의 2011년 수출: 472백만달러(선박수출 제외) 우리나라의 2011년 수입: 57백만달러(선박재수입 제외)
교역품	○ 수출: 승용차, 경유,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컴퓨터 등 ○ 수입: 고철, 게, 중유, 알루미늄괴/스크랩, 윤활유 등
투자 교류	우리나라의 대 파나마 투자 현황 ○ 9건, 163.5백만달러(2012년 9월 기준 수출입은행 집계 투자건수) ○ 파나마의 대한 투자는 전무
교민	310 명('11년 재외동포현황통계) ○ 시민권, 영주권자: 80 명 ○ 일반체류자(지상사 주재원 등): 225여 명

자료: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¹⁾KOTIS,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정치 사회 동향

가. 역사요약

파나마가 세계에 알려진 것은 1501년 스페인 Rodrigo de Bastidas의 첫 발견 및 1502년 Christopher Columbus가 4차 해외 원정 시 ‘파나마지협’을 방문하면서부터다. 이후 파나마는 잉카제국 등 신세계에서 채굴한 금/은 등의 자원을 본국으로 이송하는 경유지로 급속히 성장하게 된다.

이후 파나마는 두 번의 독립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첫째로는 1821년 11월 10일 스페인으로 부터의 독립이, 두 번째로는 1903년 11월 3일 (현)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파나마는 스페인 독립 후에도 콜롬비아의 한 주로 남아있었는데, 파나마지협을 가로지르는 길(현재의 운하길)을 미국에 영구 조차하겠다는 미국과 콜롬비아간 “Herran-Hay 협정”이 콜롬비아 상원에 의해 무효화되면서 미국은 파나마를 도와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파나마공화국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후에도 파나마는 몇 차례의 역사적 변곡점을 거치게 되는데, 1977년 9월 Torrijos-Carter 조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파나마운하 소유권 반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을 통해 파나마는 1999년 12월 31일 12시부터 파나마운하 소유권을 완전히 파나마로 이양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 12월 미군의 침공 및 당시 독재자였던 Noriega장군의 미국 압송은 파나마 근대사의 얼룩이기도 하다.

나. 정치사회동향

파나마는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연임은 불가능하며, 10년 경과 후 재출마는 가능하다. 대통령은 부통령과 내각을 지명할 수 있다. 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대통령은 2009년 5월 3일 대선을 통해 선출되었다.

의회는 단원제로 정원은 71명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총선과 대선은 같은 날에 치러진다.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다시 민사, 형사부로 나뉜다. 대법원은 총 9명의 법관이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009년 7월 1일 취임한 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대통령은 연금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공약사항을 꾸준히 이행하였고 범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그간 대중의 높은 지지를 얻어온 것이 사실이나, 기업가 출신 대통령으로서의 서툰 국정운영방식,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대중과의 소통 부재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고, 더불어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스캔들도 연달아 터지면서 지지세력 이탈 또한 가시화되는 듯한 양상이다.

실제 2010년 7월 Bocas del Toro州 바나나농장(Bocas Fruits Company) 노동자 주도의 소요사태를 무력진압,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노동계·환경단체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형사법 등을 포함한 친기업 법률개정안(일명 “9 in 1 law”)을 주요입법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재가했던 점, 외국정부의 광산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 광업법 개정안(Ley No. 8)이 2011년 2월 11일 대통령 재가를 득한

후 지역 원주민 및 환경론자로부터 비롯된 반대여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자, 법안 철회를 서둘러 발표했던 점 등 여론에 휘둘려 중대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소속정당 CD(Cambio Democratico)당과 PP(Partido Panamenista)당간의 전략적 ‘대연정(연합당 의석수 52석)’은 대중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그 결속력을 한동안 유지해왔으나, 2011년 8월 말 마르티넬리대통령이 PP당대표인 바렐라(Carlos Varela)부통령 겸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경질하면서, 긴밀했던 양당 동맹관계가 와해되기에 이르렀고, ‘대연정’ 해체의 후폭풍으로 PP당 소속 현직 장관 인사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고위인사들이 줄 사임하는 등 정치지각의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무엇이 CD-PP당간 ‘대연정’해체를 불러왔는가

CD당 소속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당선자 최소득표율 50%를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발표, 이의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PP당 소속 바렐라 부통령은 동 개정안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언급하며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사실 현재의 CD-PP당간 ‘대연정’ 구성은現집권당인 CD당이 ‘14년 차기 대선에서 PP당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전략적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2009년 대선 때에도 바렐라 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물러난 바 있다.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한 마르티넬리는 결국 차기 대선 유세에 전념하는 등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바렐라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결국 바렐라의 부통령직과 외교부장관직 중 후자인 장관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부정부패 스캔들도 대통령을 위시한 파나마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형 태풍이다. 특히 이탈리아인 사업가 Valter Lavitola의 파나마 정계 뇌물공여사건, 이탈리아 방산업체 Finmeccanica 헬리콥터/레이더장비 입찰 비리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현 대통령이 동 비리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는 Valter Lavitola가 이탈리아 전총리인 Silvio Berlusconi 뇌물공여죄로 체포되면서 이탈리아 언론에 의해 파나마 정계 대상의 뇌물공여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법원은 증거부족으로 뇌물공여죄를 취하한 바 있다(8월경).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작년 44%수준이었던 대통령 지지도가 올해 24%(4월 기준)로 급락하는 등 집권 초와 비교하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현지 IPSOS 여론조사 결과). 5월 28일 파나마 주요일간지인 La Prensa가 Unimer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1. 최측근인 대통령 비서실장 Demetrio Papadimitriu의 토지거래 비리 연루에 따른 해임(7월), 2. 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도급 사업자인 TCT의

파나마 최대일간지 La Prensa紙 봉쇄 소동(2012년 8월 3일)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부 고위급 인사 2명을 즉시 해임함으로써(8월 22일) 비리연루에 선을 확실히 그으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할 뿐이다.

다.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대통령 소개

2009년 5월 3일 치러진 파나마 대선에서 친기업 성향의 CD(Cambio Democratico, 개혁민주당)당의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변화를 바라는 파나마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5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 발비나 에레나 (Balbina Hererra) 후보와 연합야당 마르티넬리 후보의 2파전으로 사실상 압축되었으며 주요 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연합야당 후보인 마르티넬리 당선인이 줄곧 선두를 유지했다.

대선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르티넬리 후보와 2위 발비나 후보의 격차가 15%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60%의 득표율을 기록한 마르티넬리 후보가 37%에 그친 발비나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마르티넬리 당선인은 미국 버지니아주 Staunton Military Academy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Arkansas 주 Lafayetteville에 소재한 Arkansas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코스타리카 INCAE 대에서 경영학(재무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사업가로서 성공하여 파나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Super 99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었으며 방송국(Televisora Nacional de Panama), 제당업체(Molino de Oro), 은행(Global Bank), 케이블 방송업체(Direct TV), 제분업체(Gold Mills), 부동산개발회사(ERA) 등 다수의 유력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가로 자수성가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마르티넬리 당선인은 소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자세로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수정당인 CD당의 대표이며, 파나마의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1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대선에서 단지 5.3%로 4위에 머무르며, CD당은 단지 3 의원석을 차지하였으나 금번 대선에서 연합야당을 구축하여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기업 경쟁력 제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확대, 신규고용 창출, 교육 수준 향상, 빈곤층 축소, 공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2009년 기준 파나마가 범죄율 증가 및 교통 부문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르티넬리 당선인의 변화의 메시지가 유권자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도우파 성향을 가진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내내 친시장적,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경제성장을 달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여 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워 빈곤층 무상지원 위주의 포퓰리즘 성향을 발비나 후보와 구분되었다.

마르티넬리 당선인은 국가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인 경제성장은 시장개방 경제체제 운영, FTA 체결,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국내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나마 행정부 내각구성

부처	성명(소속정당)
부통령	Juan Carlos Varela (Panamaenista)
농업부(MIDA)	Oscar Osorio Casal (CD)
재정경제부(MEF)	Frank de Lima (CD)
교육부(MEDUCA)	Lucinda Molinar (무소속)
외무부(MIRE)	Fernando Alvarez de Soto (CD)
내무.법무부(MINGOB)	Jorge Ricardo Fabrega (CD)
보건부(MINSA)	Franklin Vergara (CD)
주택부(MIVI)	Jose Domingo Arias (CD)
노동부(MITRADEL)	Alma Cortez (CD)
대통령실(Presidencia)	Roberto Henriquez (CD)
공공사업부(MOP)	Federico Suarez (CD)
사회개발부(MIDES)	Guillermo Ferrufino (CD)
통상산업부(MICI)	Ricardo Quijano (CD)

*출처: EIU(2012년 9월 Country Report)

라. 국제관계

마르티넬리 행정부는 외교정책에 있어 미국, 아시아 등 거대시장을 지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2007년 비준 이후 수년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미-파 FTA의 미의회 비준 통과를 그간 파나마정부의 대외정책 중 최우선 아젠다였으며, 최근 추진된 12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즉, 파나마는 중미의 대표적 친미국으로, 2012년 11월 중 발효될 미-파 FTA는 파나마 현정부의 최대 숙원과제였다 하겠다.

실제로 파나마정부는 미-파 FTA 비준에 앞서 미의회가 제시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체결, OECD 지정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 제외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0년 말 파나마의 중미의회(Parlacen, Central American Parliament) 탈퇴는 회원국 및 의장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과감히 추진되었는데, 이는 실리가 불분명한 중미지역을 바라보는 파나마정부의 냉랭한 시각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마약과의 전쟁 관련 협력의제를 제외하고는 중미국들과의 관계가 당분간 소원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특히 핵심 교역 파트너로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 대만과의 오랜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의 새로운 국교수립 가능성도 종종 논의된다. 특히 대만 신임대사인 “Diego Chou” 임명장 접수를 수개월간 미뤄오다 7월 23일에서야 아그레망을 내줬다는 사실도 매우 이례적인데, 표면적으로는 대만 외교부장관 Timothy Yang이 현정부에 비판적인 바렐라 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다소 지난 일이긴 하나 2010년 6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SICA정상회담 참석 차 파나마에 방문, 양국간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국교수립 이후 최초), 같은 해 10월에는 답방 형태로 마르티넬리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한-SICA FTA와 같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정치외교

파나마는 한국과 1962년 9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1973년 주파나마 한국대사를 개설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간 한국과는 큰 교류 없이 운하 이용국 순위에 간간이 이름을 올리는 정도였으나,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 파나마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주요 SOC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아국기업이 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교류 강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년 전에는 파나마가 SICA의장국(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중미협의회)으로서 2010년 6월 말 SICA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는데, 이 때 양국 수교 이후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파나마에 방문, SICA회원국들과 정상회담을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 파나마 재경부차관의 방한, 2010년 10월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고(2012년 4월 1일부 발효), 2011년 4월에는 한-중미(SICA) FTA 타당성 연구결과도 발표한 바 있어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공동관심사 발굴에도 한창이다.

이 밖에도 아국정부는 한-SICA비즈니스 포럼 등 양국 경제인들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도 보다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 2001년 7월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더 나아가 6개월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2012년 6월 15일에는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한 영주권 취득 혜택국(총24개국) 목록을 대통령령 416호로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한국도 편입되면서 한국의 우수기술인력 진출이 용이해졌다고 하겠다.

영주권 취득 가능 국가(총 24개국)

한국,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미국, 슬로바키아,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체코, 스위스, 싱가포르, 우루과이, 칠레, 스웨덴 등

2012년 9월 현재 북한과의 외교관계는 없다.

나. 사회문화

중남미에도 뒤늦은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사관이 주최한 2011년 K-POP 경연대회는 현지사회에 한류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파나마에도 다수의 팬클럽이 만들어져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교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5월 26일 주파나마 대한민국대사관이 성황리에 개최한 “한류경연대회”에 600여명에 이르는 많은 파나마인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동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통해서도 널리 방영되었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경제통상

전세계가 미개발 자원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 Cobre Panama 동광산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총 50억달러 규모의 동 개발사업에 KORES와 LS-NIKKO가 총 2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향후 채굴이 시작되면 막대한 양의 구리자원을 아국기업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광산 배후 시설인 7억달러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도 SK ENC에서 최근 수주한 바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추정)	2012 (예상)
명목 GDP(U\$ 백만 달러)	19,794	23,002	24,080	26,080	30,556	35,442
실질 GDP 성장률(%)	12.1	10.1	3.9	7.6	10.6	8.9
인구(백만 명)	3.3	3.4	3.5	3.5	3.6	3.6
1 인당 GDP (U\$, PPP)	13,512	14,960	15,451	16,558	18,406	20,066
1 인당 GDP (U\$, Nominal)	5,907	6,752	6,956	7,614	8,590	-
실업률(%)	6.8	5.8	6.9	6.8	4.5	4.4
소비자물가(%)	6.4	6.8	1.9	4.9	6.3	5.5
이자율(%)	8.3	8.2	8.3	7.7	6.9	6.6
무역수지(백만 달러)	-3,189	-4,049	-2,181	-4,555	-5,997	-6,131
수출(백만 달러)	9,648	12,025	12,038	12,680	16,949	17,877
수입(백만 달러)	-12,837	-16,074	-14,218	-17,235	-22,946	-24,008
서비스수지(백만 달러)	2,247	2,511	3,324	3,422	3,775	4,016
외채(백만 달러)	10,241	10,721	12,418	13,217	13,342	14,181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1,935	2,424	3,028	2,715	2,315	3,314

자료원: WorldBank(2012년 9월), EIU CountryReport(2012년 9월) 종합

나. 주요 경제정책

파나마정부는 2012년 정부예산으로 전년대비 11.4% 증액한 144.5억달러를 편성하고 국회의 재가를 득하였는데, 여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건설부문 과잉투자·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앞서 일련의 대형 국책사업들을 통한 경기부양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확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파나마정부는 지리적 이점 및 파나마운하를 십분 활용, 미주지역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 관련 SOC투자 프로젝트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운하 확장 등 대형 국책사업에 힘입어 2011년에는 10.6%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2012년에도 경전철(METRO) 사업 등 정부 주도 대규모 SOC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만큼,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환경 악재 속에서도 5% 이상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Worldbank에서도 2012년 파나마 경제성장률을 6.1%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외에도 민간소비 또한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민간소비 성장률도 2013년까지 5.2%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에서는 서비스부문, 특히 운수 및 통신부문이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관광업은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 무역

교역부문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이렇다 할 제조업 기반이 없는 산업구조 상 수출 감소세 및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수출품목으로 명맥을 잇던 멜론, 파인애플 등의 농수산물도 해외 수출이 40~60% 급감하였고, 특히나 미-파 FTA가 비준되면서 무관세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업분야의 광범위한 피해도 예상된다.

3) 인플레이션

2011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6.8%로 2007~8년대의 경제개발 붐과 같은 고도의 물가상승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8월의 경우 9.8%에 달하였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물가는 201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109%로 조사된 바 있어, 일반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큰 편이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일차적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대외요인에 의한 것이나, 공공부문 및 민간 과잉투자에 따른 유동성 문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쓰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 시 추가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환율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국과의 통화협정에 의거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dollarization)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항상 US\$1 = B/1 이다.

공식적으로는 미달러화를 발보아(Balboa; B/)라 칭하고 있으며 1달러 이하 동전은 직접 주조하여 미화동전과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전은 미화와 발보아화가 통용되고 있으며, 크기도 상호 동일하다. 1941년 Arnulfo Arias대통령 집권 당시 발보아 지폐가 일시 발행된 적이 있으나 며칠 후 바로 회수에 들어가 소각 처리되었다. 이후로는 줄곧 미달러 지폐만 통용되고 있다.

미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남미 다른 나라처럼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없으며 환전 개념도 없다. 파나마가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92개 외국은행 진출)로 크게 발돋움한 것은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가는 저렴하지 않으며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5) 경상수지 / 외환보유고

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6%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꾸준한 FDI 유입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히 경상수지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운하확장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적 기자재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운하공사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11%에서 8.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투자를 비롯한 여타 자본유입이 꾸준하다는 점을 고려할 시, 외환보유고는 2011년 말 23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33억달러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6) 실업률/최저임금

공식실업률은 2012년 3월 기준으로 4.6%에 불과하다(2012년 9월 최신 통계자료 기준). 남성실업률은 3.8%로 여성(6.0%) 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실업률은 2011년 8월 대비 증가세가 뚜렷하였으나, 남성실업률이 0.4%가량 줄어들면서 전체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최저임금은 2012년 1월 1일부로 파나마노동부가 새로이 고지한 법률에 의거 15~18%가량 인상되었다. 주요 직종 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파나마시티 기준).

파나마 최저임금 고시표(일부 요약)

직종	구분	최저임금(U\$/hr)
제조업	중소기업	1.76
	대기업	2.14
건설업	일반	2.36
도매업	수입	2.14
	사탕수수관련업종	2.08
	연료	2.14
소매업	중소기업	1.74
	대기업	2.14
	슈퍼마켓	2.08
경제특구, 보세구역		2.36
호텔	중소규모	1.78
	대형	2.08
	유명체인(또는 200개실 이상)	2.14
식당	중소규모	1.76
	대형	2.14
금융업	은행	2.36
	저축은행, 신용금고	2.36
	전당포	2.08

*출처: 파나마노동부(MITRADEL)

라. 향후 전망

파나마는 2010년 7.6%, 2011년에도 10.6%이상의 GDP성장을 기록한 여세를 몰아, 중미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파나마운하 확장공사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사업이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프라 및 건설부문 외에 서비스부문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소로, 특히 국제교역회복에 따른 파나마운하 통항량 증대와 같은 운·수송부문 성장도 기대할 만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 문제도, 파나마에서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낮게 유지될 전망이어서 민간소비부문의 견실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World Economic Forum은 2011년 9월 초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12)를 발표하면서 파나마의 국가경쟁력을 49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09년 59위 (133개국 중), 10년 53위(139개국 중)에서 다시 4계단 상승한 것으로 무엇보다 높은 금융 시장 경쟁력과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덕분이라 할 수 있겠다. 중남미를 통틀어서는 칠레가 31위로 유일하게 파나마를 앞서고 있는 국가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파나마는 2011년 한 해 명목GDP 기준으로 306.8억 달러, 1996년 화폐가치 기준 232.5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4%가량 성장한 높은 성장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단연 물류운송(13.7%), 도소매분야(25.1%), 건설분야(18.2%) 등 파나마 전통 강세산업이 주도하였다. 산업 별 동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산업

2011년 농축수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곡물류(쌀, 옥수수), 사탕수수 등 주요작물의 작황이 개선되면서, 3.8%가량 성장하였다. 쌀은 2010년 대비 8.1%, 사탕수수는 6.9%, 파인애플은 17% 가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반면, 수출 강세품목이었던 멜론, 수박 등 과채류는 수출량이 각기 61%, 43% 급감하면서 생산 또한 1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나나 생산도 4.1% 줄어들었다.

목축분야도 2011년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소는 8.0%, 닭은 8.3%, 돼지는 12.7% 가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수산업은 수년간 위축세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데, 2011년 한해만 21.9%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변화, 수출시장 감소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2) 건설업

건축업은 18.2%가 성장했는데, 주로 토목 부문의 성장(18.5%)이 이를 견인하였고 주거/상업지구부문은 11.4% 성장에 그쳤다.

건설업종의 견인차는 공공 및 민간부문 토목사업이었으며, 여기에는 파나마 제2운하 확장공사, 경전철사업(METRO), 수력발전소 확충사업, TOCUMEN국제공항 확장공사, 파나마만 정화사업, 해안벨트도로(CINTA COSTERA도로) 2, 3단계 사업 등이 해당된다.

건축물 형태 별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11년 한해 동안 15.3%가 늘었으며, 토목 건축물은 37.4% 급증하였다. 반면, 주거용 건물은 성장세가 가량 1.8% 줄어들었다.

3) 도·소매업

2011년도 상업부문을 이끈 분야는 단연 도매업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5.1% 가량 성장했다. 이는 건축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기계류, 장비류의 구매수요 증가도 이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종은 성장률이 9.2% 수준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는데, 이는 식품류, 신차판매량 증가, 여타 생활소비재 등 일반 소비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상업활동 또한 15.1%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주요 배후시장으로의 재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4분기 동안은 16.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4) 물류, 통신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인터넷서비스 활황에 힘입어 13.7%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파나마운하 운영실적은 8.5%, deep-draft선 통항 선박수는 2.5%, shallow-draft선 통항 선박수는 2.2% 성장을 기록하였다. 운하 통항 외 선박대상의 이차서비스는 13.9% 증가하였다. 항만서비스 또한 컨테이너 처리량이 18.5% 늘면서, 16.6%가량 증가하였다.

항공운송부문도 17.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무엇보다 파나마가 중남미 각국으로의 항공편 연결이 매우 편하다는 점 때문에 항공허브로 점차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5) 금융업

은행업종은 은행수수료 인상에 힘입어 8.1%성장을 기록하였고, 보험업종 또한 보험료 인상 등의 사유로 8.7%가량 성장한 한 해였다.

6) 부동산업

최근 수년간 주거용 건물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중개업은 7.0% 가량의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구 분	2010					2011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연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연간
농 업	-1.0	0.4	6.7	2.1	1.8	1.0	6.3	4.5	3.6	3.8
어 업	-33.5	-31.0	-50.0	-49.4	-41.5	-31.8	-33.5	-15.8	-0.5	-21.9
광 업	5.6	4.9	7.3	11.9	7.4	16.0	19.2	24.1	14.9	18.4
제조업	0.1	0.4	1.5	1.5	0.9	3.1	2.3	3.1	4.3	3.2
전기.수도	4.0	9.6	5.2	7.0	6.4	7.2	3.3	5.1	11.4	6.7
건설업	4.7	4.9	7.4	12.2	7.2	17.0	19.3	23.8	14.3	18.5
도소매	21.5	11.1	10.8	3.9	11.1	8.3	16.6	22.3	16.3	15.9
호텔.요식업	10.1	10.6	13.6	7.8	10.4	6.1	8.1	8.5	7.9	7.6
운송.통신업	16.4	15.7	17.2	12.8	15.4	15.3	15.4	12.4	11.7	13.7
금융업	3.6	1.6	4.3	13.6	5.5	7.5	9.6	5.3	7.8	7.6
부동산	6.6	3.9	5.2	4.7	5.1	7.0	10.5	7.7	3.8	7.1
보 건	6.5	5.9	6.7	6.6	6.4	-0.9	5.2	5.2	7.5	4.3
GDP	7.9	6.6	8.0	7.9	7.6	9.9	11.8	11.2	9.6	10.6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Contraloria General e la Republica), '11 년 자료는 확정이 아닌 추정치('12 년 9 월 기준)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FTA 체결 현황

파나마는 2007년 6월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지지부진했던 양국 의회 비준이 마침내 2011년 10월 21일 미의회를 승인을 받으면서, 현정부 최대의 숙원과제였던 미국-파나마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다(2012년 11월 중 발효 예정). 이후에도 캐나다, 한국, 콜롬비아 등과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논의 중에 있는 등 파나마 정부의 FTA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한-파 FTA의 경우 2010년 양국 정상간 회담이 성사된 이후 논의되기 시작하여 SICA 5개 회원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과 함께 타당성 연구를 2011년 4월 마친 바 있다.

2012년 3월에는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장관이 콜롬비아 및 멕시코와 FTA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최근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경제동맹 “Alianza del Pacifico”에 정식 편입코자 하는 파나마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이 정제계의 중론이다. ‘Alianza del Pacifico’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4개국이 주축이 되어 협상 진행 중인 지역경제공동체이다.

파나마의 각종 양자협정 체결 현황

협정	체결국	체결시기	발효시기
자유무역협정 (Tratado de Libre Comercio)	코스타리카	2003년 2월 3일	2008년 11월 24일
	칠레	2006년 6월 27일	2008년 3월 7일
	대만	2003년 8월 21일	2004년 1월 1일
	엘살바도르	2003년 2월 3일	2003년 4월 11일
	과테말라	2008년 2월 26일	2009년 6월 22일
	온두라스	2008년	2009년 1월 9일
	니카라과	2009년 6월 23일	2009년 11월 21일
	싱가포르	2006년 3월 1일	2006년 7월 1일
	미국	2007년 6월 28일	2011년 10월 12일(비준)
관세협정 (Acuerdo Comercial)	콜롬비아	1993년 7월 9일	1995년 1월 18일
	쿠바	2009년 6월 22일	2009년 8월 20일
	멕시코	1985년 12월 12일	1986년 4월 24일
부분협정 (Tratado Comercial)	도미니카공화국	1985년 7월 17일	1987년 7월 8일
경제협력협정 (Acuerdo sobre Cooperacion Economica y Comercial)	이스라엘	2010년 4월 11일	2010년 10월 6일
추진 중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2010년 5월 14일 체결	
	한국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공동연구 추진(2011년 4월)	

*출처: 파나마통상산업부(MICI)

나. 주요국과의 관계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운영과 관련된 경제활동 촉진, 파나마운하의 비정치화,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1) 미국

파나마는 1999년 12월 31일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를 인수함에 따라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64년 파나마학생 및 주둔 미군간 유혈사태로 인한 양국 국교 일시 단절, 1989년 미군침공, 1992년 미군병사 총기 살해용의자의 파나마 국회의원 선출 등 여러 차례의 고비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친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0월 12일 비준된 미-파나마 FTA협상은 현 행정부의 최대 숙원과제이기도 하였다.

2) 중남미

파나마는 정치외교적으로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다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타 중미국가와는 경제구조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미지역 경제통합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9년 11월 중미의회(Parlacen, Central American Parliament) 탈퇴 결정은 실리가 없는 관계는 과감히 청산한다는 현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등 주요 중남미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 3개국과는 관세협정을 맺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나마는 최근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4개국이 주축이 되어 논의 중인 지역경제동맹 “Alianza del Pacifico”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의 연장선 상에서 멕시코 및 콜롬비아와의 FTA추진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나마는 6월 말 중 온두라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SIECA(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 편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중미지역 내 관세동맹 움직임에 파나마 또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2012년 1월 효력이 발생하는 중미-EU와의 관세동맹을 위한 주요 과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IECA 편입과 관련된 파나마 국회의 최종 비준은 올해 2분기 중으로 결정될 계획이다.

3) 아시아

중국이 국제무대에 급부상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대만은 파나마를 위시한 중남미 국가에 모든 외교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확대, 대만기업의 투자진출 강화 등 활발한 경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96년 무역대표부 설치를 기회로 주요 인사의 파나마 방문을 추진하고, 홍콩 주재 파나마 무역대표부 존속을 허용하는 등 파나마와 외교 관계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파나마 측은 대만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 동시에 2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으나, 운하 통항량이 미국에 이어 2위에 달하는 등 중국이 핵심교역 파트너로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어, 대만과의 오랜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의 국교수립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과는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2004년 1월

1일 이를 발효했다. 다만 최근 주파나마 대만대사가 파나마의 임명장 접수 거부로 몇 달간 공석상태였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만 외교부장관 Timothy Yang의 파나마 바렐라 부통령 지지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국가간 외교에서 흔치 않은 일인 만큼 대만을 향한 파나마의 애정이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다. 대만 신임대사 Diego Chou는 2012년 7월 23일 마르티넬리 대통령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다.

2010년 6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SICA정상회담 참석 차 파나마에 방문, 양국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국교수립 이후 최초), 같은 해 10월에는 답방 형태로 마르티넬리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한파 FTA등과 같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이후 이렇다 할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다.

다.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파나마는 SELA(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CEPAL(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Nations),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ICA(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등 중남미지역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파나마는 2010년 SICA의장국으로서 6월 말 SICA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국 정상이 SICA에 옵저버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III. 무역

1. 수출입 동향

파나마는 전체무역의 상당량을 미국에 의존(2011년 전체수입액의 24.9%)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파나마 국회의 비준을 통과한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경우 대미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수입국 중에서도 특히 한국(2.7%), 중국(6.1%), 일본(2.6%) 등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 2010년 이후 수입 규모에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아마도 국산 차량의 인기급상승에 따른 완성차 및 관련 부품 수입량 증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파나마수입차연합(ADAP)에 따르면 2011년 아국승용차의 신차시장 점유율은 34%에 육박하는 등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1분기에는 35.4%로 시장점유율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밖에도 석유류(44%), 철강류(33%)의 높은 수입 증가세도 주목할만하다.

반면 새우와 바나나 같은 주요 강세품목(해산물, 농산품)의 생산 급감에 따른 수출 부진은 뚜렷하다. 특히 해산물은 2009년 이래 3년 연속 급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설탕(179%), 목재(159%)는 수출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파나마 10대 주요수입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증감률 (전년동기)
1	미국	2,226.1	2,468.5	2,775.2	12.4
2	중국	321.5	479.8	677.1	41.1
3	코스타리카	401.2	435.6	500.5	14.9
4	콜롬비아	253.7	294.1	461.0	56.8
5	멕시코	348.6	386.8	437.2	13.0
6	대한민국	202.8	287.0	298.2	3.9
7	스페인	111.8	159.8	289.1	81.0
8	일본	279.1	283.4	286.7	1.2
9	브라질	141.8	240.0	213.5	-11.1
10	과테말라	159.2	170.1	192.9	13.5
전체		7,660.1	8,964.0	11,135.0	24.2

* 자료: World Trade Atlas(2012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파나마 10대 주요수출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증감률 (전년동기)
1	미국	343.4	207.3	160.4	-22.6
2	캐나다	9.4	74.4	118.9	59.8
3	스웨덴	47.9	49.0	54.0	10.3
4	코스타리카	59.6	48.5	51.4	6.0

5	중국	19.9	35.4	38.1	7.7
6	타이완	23.6	35.8	34.1	-4.7
7	네덜란드	52.9	49.6	33.9	-31.7
8	이탈리아	16.7	14.1	19.7	39.1
9	인도	4.4	7.1	18.7	162.6
10	니카라과	10.4	14.5	18.6	28.7
12	대한민국	3.7	4.9	18.3	270.5
전체		806.1	710.8	771.0	

*자료: World Trade Atlas(201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파나마 10대 수입품목(HS코드 2단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09	2010	2011	증감률 (전년동기)
1	광유(27)	1,293.4	1,696.2	2,454.7	44.7
2	기계류(84)	816.8	974.8	1,224.6	25.6
3	자동차류(87)	758.2	846.4	1,110.2	31.2
4	전기기기류(85)	692.8	794.7	872.6	9.8
5	철강류(72)	234.4	271.4	357.6	31.8
6	플라스틱류(39)	233.5	293.1	353.2	20.5
7	의약품류(30)	313.6	314.8	346.2	9.9
8	철강제품(73)	203.8	245.2	258.0	5.3
9	편물류(62)	178.8	220.6	246.4	11.7
10	종이.판지류(48)	175.1	191.9	224.0	16.7

* 자료: World Trade Atlas(201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파나마 10대 수출품목(hs코드 2단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09	2010	2011	증감률 (전년동기)
1	과실.견과류(08)	174.3	146.3	140.0	-4.3
2	금속.광석류(71)	35.6	72.8	122.8	68.8
3	어류.해산물류(03)	353.3	182.5	115.0	-37.0
4	철강류(72)	20.0	37.8	54.7	44.8
5	설탕(17)	13.6	19.1	36.7	91.8
6	음료(22)	16.0	22.2	29.1	31.0
7	알루미늄(76)	14.4	19.7	25.3	28.3
8	목재(44)	4.3	12	24.7	104.7
9	구리(74)	8.4	19.3	24.2	25.4
10	의약품류(30)	15.7	20.3	15.7	31.9

* 자료: World Trade Atlas(201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조선업 불황의 여파에 따른 파나마 편의치적선 등록실적 감소로 인해, 2011 년 한해 선박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다. 그러나 선박을 제외한 여타 품목은 2009 년 3.4 억달러에서 2010 년 3.9 억달러, 2011 년 다시 4.7 억달러로 급신장하는 등 대파나마 수출은 매년 15~20%가량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편의국적선이 양국간 교역과 전혀 무관함을 감안하면, 실제 아국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2012 년 4 월까지의 대한 수입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23%가량 증가하였다.

올해 4 월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자동차부품(11.7%), 경유(24.4%), 타이어(93.1%), 화물자동차(48.9%) 등 자동차 관련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압도적이며, 그 밖에도 건설중장비(84.4%)를 비롯하여 아연도강판(97.6%) 등 주로 대기업 경쟁우위품목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자동차수입업연합(ADAP)에 따르면 2011 년 신차판매량은 46,644 대를 기록, 사상 최대의 수입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도 사상 최대치인 31%에 달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2009 년 시장점유율 22%, 2010 년 29%). 또한 2012 년 1 분기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대기아차 시장점유율은 34%까지 치솟은 바 있다.

반면 대파나마 수입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2011 년에는 전년 대비 35%의 급감세를 기록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도 57 백만달러 가량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는 대파나마 수입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7 월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년 동기대비 34%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선박 제외 기준).

참고로 하기의 통계수치(무역협회 자료)는 앞의 수출입동향(World Trade Atlas 자료)에 언급된 아국의 교역량과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에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교역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우리의 대 파나마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금액	증가율
2003	1,252	5.7
2004	1,264	0.9
2005	1,622	28.4
2006	2,226	37.2
2007	3,145	41.2
2008	6,463	105.5
2009	4,477	-30.7
2010	4,054	-9.4
2011	3,798	-6.3
2012(7월누계)	2,231	33.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편의국적선 포함, 2012년 9월 기준)

연도별 우리의 대 파나마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금액	증가율
2003	179	25.0
2004	294	64.1
2005	247	-15.6
2006	241	-2.8
2007	333	38.5
2008	872	161.3
2009	1,091	25.0
2010	573	-47.4
2011	394	-31.3
2012	278	2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편의국적선 포함, 2012년 6월 기준)

우리의 대 파나마 품목별 수출실적(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0	2011	2012 (7월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총 계 (선박제외)			4,053,509 (391,135)	3,798,253 (472,149)	2,230,609 (307,324)	33.5
1	7461	선박	3,662,374	3,326,104	1,923,285	36.6
2	7411	승용차	115,103	162,550	88,638	-7.8
3	1332	경유	49,604	73,554	49,692	21.4
4	6152	철구조물	1,079	4,447	18,769	796.7
5	7463	선박용엔진 및 그 부품	604	874	18,286	2,851.6
6	7251	건설중장비	13,388	17,284	13,578	65.7
7	6134	아연도강판	23,302	15,287	12,887	45.4
8	7420	자동차부품	24,428	27,282	12,475	-17.7
9	3203	타이어	12,574	14,366	12,161	68.5
10	8131	컴퓨터	18,866	16,566	9,372	-19.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012년 9월 기준)

우리의 대 파나마 품목별 수입실적(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0	2011	2012 (7월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총 계 (선박제외)			573,460 (88,760)	393,860 (57,364)	277,893	20.0
1	7461	선박	484,700	336,496	211,629	2.0
2	1310	원유	0	0	31,056	-
3	6184	고철	6,973	25,247	20,107	69.0
4	0422	계	0	8,696	5,470	100.5
5	1335	중유	7,731	4,730	3,097	-17.9
6	6211	알루미늄괴/ 스크랩	1,831	4,044	2,713	4.0
7	8361	평판디스플레이	398	467	806	152,614.0
8	1336	윤활유	1,284	1,485	659	-39.7
9	8353	폐건전지	820	1,155	502	-28.0
10	6221	동괴/스크랩	2,584	658	433	73.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012년 9월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개황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의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 농산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파나마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파나마는 1997년 WTO에 가입한 후 양허 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대 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단,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 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도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워서 철저한 준비를 요한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전자파 인증 등과 같은 의무검사는 없다.

다. 수입금지품목

파나마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 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전투용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라. 수입제한품목

파나마 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법무부 사전수입승인 필요)
-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마.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한 바 있다.

바. 수입쿼터

파나마는 1996년 12월 26일 행정령 47호로 수입쿼터, 수입사전허가, 수입수량 제한 등 일체의 수량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수입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가. 개황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미국가들과는 1970년대 쌍무협정에 의거해 일부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미와의 특혜무역협정 내용은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나마가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이다. 이들 국가와는 교역가능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동 특혜무역협정의 관세율은 대략 1~10%이다. 한편 인근 중남미 지역 블록 경제에 속해 있는 특정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관세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는 2002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 4월 11일 발효되었다. 대만과도 2003년 8월 21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기타 코스타리카,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도 발효된 상태이며, 현정부 숙원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도 2011년 10월 12일부 미의회 비준을 통과하였다. 한편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도 2010년 5월 14일 체결되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과는 부분관세협정을 맺고 있으나, 주변 4개국(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이 주축이 되어 논의 중인 지역경제동맹 “Alianza del Pacifico” 편입을 위해, 멕시코 및 콜롬비아와의 FTA논의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통상산업부(MICI) 장관이 직접 밝힌 바 있다. 한국과는 2010년 양국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파 FTA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나.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1994년 12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수입 관세 상품 분류체계를 CCCN에서 HS 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분류를 위한 상품 분류는 21부, 97류, 1,241 Partida, 5,019개 Sub-Partida, 8,298개 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 정부는 1999년 WTO 가입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로 획기적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율 수준은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최고 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0, 3, 5, 10, 15%)로 단순화되었다. 먼저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 되던 공산품은 10% 단일 관세로,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대 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등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파나마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 외에도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ITBM) 7%를 별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ITBMS)는 2010년 7월 1일부로 인상되었다.

(자료: 파나마 관세청, 관세율표, EIU)

6. 주요인증제도

가. 품목별 보건위생 안전규정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제품 및 하위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품, 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고 주한 파나마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s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급하고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여진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수입물품의 품질 분석을 거쳐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 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나.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음식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 해야 한다.

다. 선적전 검사제도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 (자료: 파나마 보건부, 농축산개발부)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소유권 개황

파나마는 국제지적소유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 음반보호 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 위성관련 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해 있다.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적소유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년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 1998년 3월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적소유권 단속반을 설립한 적도 있다.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관련 법규는 '94. 8월 발효된 지적소유권법(Law 15) 및 1996년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파나마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적소유권 침해 소송 제기 시 장시간이 소요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적소유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품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몇 개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특허권

파나마 공업소유권법에 의거 특허권은 20년간,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15년간 보호된다.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파나마 국민의 소유권이 최소 30% 이상인 파나마 등록 법인이 특허권 소유자일 경우에는 10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 발효 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특허종류에 따라 외국인은 5~15년, 파나마인의 경우 5~20년간 보호되었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발효된다.

다. 상표권

파나마의 상표권도 공업소유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업소유권법 발효에 따라 상표권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밖에 동법은 상거래 비밀 보호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라. 저작권

파나마는 1994년 세계지적소유권 기구가 제시한 모델에 따라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으로 파나마 저작권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 개념에서 보호된다.

(자료: 파나마 공업소유권법, 외무부)

8. 통관 / 운송

가. 개황

수입자는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및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 소재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 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de Panamá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참고로 관세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후 납부하면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후 납부하면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1)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 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후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 세관에 수입관련 제 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2)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 없이 정상 근무한다.

3) 컨테이너 운송 소요기간

한-파나마 간 컨테이너 운송소요기간은 다소 편차가 있으나, 빠른 경우 약 10~15일(부산항-발보아항 기준) 가량이면 도착하기도 한다.

나. 통관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2)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송장 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송장(invoice)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만 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송장(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 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쉬핑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4)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5)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다. 통관관련 단체 및 통관대행 법인

1)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ión Nacional de Corredores de Aduana de Panamá)
 - 주소: Clayton Calle Maritza alabarca, edificio 1052,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393-6080/6090, 팩스: 507-393-6050
 - E-메일: uncap@uncap.org.pa / tradisa@cableonda.net
 - 회장: Mr. Erides A. Diaz J. / President

2) 통관대행법인

- Arturo Arauz, S. A. (www.arturoarauz.com)
 - 주소: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전화: 507-264-6575, 264-2210
 - 팩스: 507-263-5989
 - E-메일: kcigarruista@arturoarauz.com
 - 담당자: Mrs. Kathia Cigarruista / Manager
 - 대표 : Mr. Arturo Bolivar Arauz / General Manager
- Bullen & Bullen, S. A.
 - 주소: Vista Hermosa, Plaza Cordoba local 14,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229-5524, 팩스: 507-229-1922
- E-메일: bulle213@cableonda.net
- 담당자: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 A.
- 주소: Apartado 0834-2653, Boulevard el Dorado Edificio Colonial,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260-2498, 팩스: 507-260-2625
- E-메일: duyoladu@hotmail.com
- 담당자: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 A.
- 주소: Via transistmica entrando por la farmacia Arrocah, Edificio Buenaventura, apto1B,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229-4315, 229-4210, 팩스: 507-261-4444
- E-메일: albato@grupogardellini.com
- 담당자: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 A.
- 주소: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1, Planta Alta,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260-7557, 팩스: 507-260-2986
- E-메일: hugoarjona@cwpanama.net/ harjona3000@hotmail.com
- 담당자: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라. 주요 공항 및 항구

1) 국제공항

관문으로서의 국제공항은 토쿠멘국제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이 유일 하다. 고속도로(Corredor Sur)를 이용할 경우 2~30분 정도면 파나마시티 중심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토쿠멘 국제공항은 1947년에 건설돼 1978년에 첫 보수 작업을 거쳤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크기가 작아 정부당국에서는 토쿠멘 국제공항 확장 및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포화상태에 있는 승객터미널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북측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약 21천평방미터의 면적 및 12개의 탑승구가 추가 확보되어 공항 수용능력이 약 9백만명으로 늘어났다. 토쿠멘 국제공항을 경영하는 국영기업 토쿠멘 국제공항주식회사(Aeropuerto de Tocumen S.A.)가 파나마법을 제23호 (2003.1.29)에 의거, 2003년 6월 1일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IATA)가 토쿠멘 국제공항 확대작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파나마 국제공항 확장 및 개선 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첫 단계는 현재 미국의 여러 공항보수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 Leo A. Daly사와 Constructora San José(스페인)사, Constructora Québec(파나마)사에서 합작으로, 약 40억달러(예산은 공항자체 조달)가 투입되어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행관리시스템, x-ray 장비, 에스컬레이터 등 공항 시설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계는 화물터미널 보수가 주를 이루게 된다.

- Aeropuerto de Tocumen S.A. (www.tocumenpanama.aero)
 - 주소: P.O. Box 0838-02408 Zona 12, Panamá, Republic of Panamá
 - 전화: 507-238-2600
 - 팩스: 507-238-4725
 - 대표: Mr. Juan Carlos Pino, General Manager(공항공사 사장)

2) 국제항구

국제 항구로는 파나마운하 양대양 초입에 5개 항구가 위치해 있다. 태평양에는 발보아항(Balboa)이 있으며 대서양에는 크리스토팔항(Cristóbal), 만사니요항(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 MIT), 에버그린항(Evergreen/Colon Container Terminal), 콜론항(Colon Port Terminal)이 있다.

파나마 항만 분야는 다가오는 Post-Panamax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화물들이 중남미 각국으로 환적하는 허브항만로서의 역할이 파나마 소재 항만에 요구되는 한편,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이른바 Post-Panamax급의 대형선박을 수용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파나마운하로는 Post-Panamax급 선박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2006년 국민투표를 통해 운하확장을 가결, 2007년 9월 태평양 측 운하입구 발파작업을 시작으로 수로확장 및 대형갑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총 공사비의 60%를 차지하는 갑문 공사는 스페인계 “SACYR社”를 주축으로 하는 “Grupo Unido por el Canal”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다. 운하확장 소요예산은 52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운하개통 100주년이 되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자가조세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의 수입 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파나마 관세청, 현지 실사)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외국인에 유리한 투자환경 갖추고 있어

파나마는 그 지리적 위치, 취약한 산업력 등의 요인으로 일찍부터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 친숙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의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으며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도 없다.

따라서 파나마는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있다. 또한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파나마운하 및 콜론자유무역지대가 소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이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물류 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파나마는 과실 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이다.

현재 파나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기업들로 Texaco,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Constellation Power, AES, Enron, Coastal Power, Bell South, Northville Industries, Chicago Bridge, Iron, Mobil, Continental Airlines 등이 있다.

더 나아가 2012년 6월 15일에는 대통령령(Decreto ejecutivo 416)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5월 16일 대통령령 343의 영주권 취득국 22개국에 한국과 영국을 추가한 것이다. 동 법률의 요는 전문 숙련공 및 기술자의 파나마 이민을 적극 장려키 위한 것으로, 파나마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고급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영주권 취득 가능 국가(총 24 개국)

한국,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미국, 슬로바키아,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체코, 스위스, 싱가포르, 우루과이, 칠레, 스웨덴

영주권 신청 대상 및 취득 요건

- 대상
 - 24개국 국적의 외국인 중 파나마 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자의 부양가족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부모)
 - 단,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을 수학 중이거나 경제부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취득 요건
 - 최소 5천 달러의 은행잔고 보유자 혹은 이민국이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입 증명 가능자
 - 단, 동 영주권이 노동허가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이 밖에도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설립법 내의 비자 관련 제도도 통상산업부(MICI)에 의해 수정법안(Proyecto de Ley 487)이 국회에 상정, 가결된 바 있어 외국 다국적기업 소속 주재원들의 체류편의도 더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설명(51페이지)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각종 인센티브로 무장한 ‘산업특구’ 많아

2004년에는 구 하워드 공군기지를 개조한 “Panama Pacifico”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외투기업 유치에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한창이다. 동 경제특구에는 2010년 현재 3M, DELL, CAT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며, 항만 접근성, 파나마시티 및 TOCUMEN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을 무기로 물류분야 기업 유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1999년 말 파나마운하의 완전 이양을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공단지, 지식의 도시 등 여러 특구를 개발한 바 있고, 따라서 현지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다. 유망분야는 물류산업, 정부 육성분야는 제조업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중심지이며 중계 무역지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 산업 투자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최근 외국인 투자규모(FDI기준)는 2008년 정점에 달하면서 2,401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1,772백만달러로 26.2% 급감했다. 그리고 2010년 2,363백만달러로 33%가량 급신장하며 투자 붐이 한창이던 2008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그렸다(201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분야별로는 금융업 투자액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도소매업(20%), 물류 통신업(16%), 공공서비스업(전기, 수도)(12%), 건설업(7%), 제조업(3%), 호텔 요식업(0.4%) 이 뒤를 이었다.

투자 금액 규모면에서 외국기업 상위 5개사를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등이 있다.

페이퍼컴퍼니 등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기업공개를 꺼리는 관행도 있고 현지 통계당국도 투자유치 관련 통계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자세한 동향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출처: 파나마투자수출진흥공사(PROINVEX, Agenci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중미지역을 총괄하는 국내 대기업의 지역본부는 대부분 파나마에 진출해있다. 최근에는 한국통산(2008년), 온스틸(2010년)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무역보험공사(2009년), 한국선급(2011년), 현대자동차 상용차사무소(2011년)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통계에 따르면 2010년 21개의 신규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 2011년에도 9개의 신규법인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6년간 대파나마 신규법인 설립 동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신규법인(개사)	13	10	25	21	9	9
투자금액(천달러)	172,197	240,929	241,117	162,669	87,891	163,482

*자료원: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 2012년 9월 기준 조회)

제조업으로 투자 진출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최근에는 광산개발 투자진출 등과 같이 진출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교민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영업활동 중에 있는 국내 진출기업은 15개 남짓으로 추산된다.

국내기업 LS-Nikko 및 KORES社의 주재국 최대규모 동광산 개발회사 지분인수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Petaquilla 동광산은 추정매장량 기준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광산 중 5위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국내기업은 현재 총 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비용 중 10억달러를 부담하고, 광산 개발회사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광산개발이익을 선점한다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다. 광산 개발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면 발전소, 도로, 항만건설 등 각종 인프라건설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국내 건설기업의 참여 기회도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SK E&C는 2011년 7월 상기 광산개발사의 300MW급 석탄발전소 발주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12년 3월에는 KOTRA가 파나마 종합박람회(2012 EXPOCOMER)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국내 중소기업 16개사의 전시를 지원함으로써 4일간 43백만달러의 상담실적 및 10백만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가. 현지 법인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통산, 온스틸(생산법인) 등이 있으며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경우 중남미본부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많은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

나. 지사/지점

외환은행,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무역보험공사, 삼화컨테이너, 한국선급, 현대자동차 상용사무소

외환은행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한국선박들의 운하통과수수료 납부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진출한 LG전자, 삼성 전자 등의 법인운영 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업을 제외한 일반인 대상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료: 현지 실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정책 개황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 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 및 주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무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상공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대외무역차관실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VICOMEX)을 신설한 바 있다.

2004년 대만, 2007년 엘살바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해 주력 하는 등 FTA를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파나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파나마의 투자 유치 관련 법규는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54호('98.7.22 제정)를 공포하여 동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 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54조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투자 관련 주요 법규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98. 7. 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95. 6. 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법률 25호: '92. 11. 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97. 7. 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96. 2. 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95. 8. 26. 제정)
- 다국적기업 본부설립에 관한 법(법률 41호: '07. 8. 24.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 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다. 투자우대제도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국내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우대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2)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3)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25호(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4)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예: 3%의 특혜관세, 관세환급, 임시 수입통관 등)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5)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 법 41호에 의거, 소득세, 부가가치세(ITBM), 사회보장세, 교육세, 관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 파견직원 대상 SEM 체류비자 제공 및 법률 41호 준수 전제 하 90%이상 파나마국적자 고용의무 면제 등

6)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라. 투자 제한 제도**1)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후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2) 자국민 고용 의무

외국기업의 내국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직원의 90% 이상을 파나마인, 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혹은 기술자일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원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나,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40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하다.

4)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송금 및 대외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5)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도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통신 부문을 비롯하여 기간통신망, 항만, 도로 등 대부분을 민영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진출도 상당한 편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파나마국적으로의 선박등록이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만 3,000대 이상의 외국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편의치적 등록선수 세계 1위).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안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자료: 파나마 재경부, EIU, 파나마 노동법)

마.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 차관실 생산투자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제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350만 명의 소국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내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25호('94.8.26) 및 행정부령 제35호('96.5.24)에 의거 상공부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 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운하 반환지역 관리청(ARI)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 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생산투자진흥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참고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업체 경영인의 국적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숙련기술자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1998년에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외국인 투자 시 자본금 규모, 과실송금, 이윤 배당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투자한 후 10년 동안 투자 시의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 EIU)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구분

1) 합명회사(Partnership)

□ 합명회사(Partnership) : (서) Sociedades colectivas, (영) General Partnerships

-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 회사정관 및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책임의 범위는 분담금보다 낮을 수 없다.

- 합명회사는 파나마 상업법(Commercial law) No. 24 of 1966에 언급되어 있다.

□ 단순유한책임조합 : (서) Sociedades en comandita simples, (영) Simple limited Partnerships

-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혼재된 유한책임조합. 무한책임조합원은 개개인이 경영책임을 공유하고 회사의 채무에 함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 파나마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회사형태이다.

□ 주식합자회사 : (서) Sociedades en comandita por acciones, (영) Joint-stock partnerships

- 단순유한책임조합과 유사. 조합원의 투자자본은 주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영자 그리고 최소 5명의 자본가 또는 익명사원(Silent partner)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경영인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무한책임을 져야하나 자본투자자는 각각의 기여도만큼만 책임을 진다. 파나마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회사형태이다.

□ 유한책임회사 : (서)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영)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주주의 책임이 자본참여액으로 제한되는 회사. 사명에 “SRL”, 또는 “S. de R.L.”, “Sdad. Ltda.”를 병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진다.
- 아래 언급할 주식회사(Sociedad Anonima)와는 달리 조합원 익명 보장에 제약이 있으며, 업종도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은행업 등을 제외한 상업 용도로만 등록 가능하다.
- 자본금도 최소 2천달러에서 50만달러로 제약이 있고, 조합원도 2명 이상 20명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주가 2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더 많다면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이 유리하다.
- 유한책임회사는 파나마 상업법(Commercial law) No. 24 of 1966에 언급되어 있다.

2) 합작회사(Joint ventures)

□ 합작회사(Joint ventures): (서) Asociaciones accidentals o cuentas en participacion, (영) Joint Venture

- 합병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일시적인 제휴가 요구될 때 파나마에서 널리 통용되는 회사형태.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일회사로 등록되는 만큼, 세무당국의 사업자번호는 1개만 부여된다.

□ 민영이익재단: (서) Fundaciones de Interes Privado, (영) Private interest foundations

- Liechtenstein's family foundation law를 바탕으로 1995년 제정 법률 "LAW25"에 의거 신설된 회사형태. 본래의 취지는 비영리 원조단체 설립을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상업활동 참여를 금하고 있으나, 자본, 주식, 증권 등을 갖출 수 있다.
- 성격상 소유주(설립자, 후원자, 수혜자, 위원회 위원 필요)가 없어, 재단 자산에 대한 동결은 물론, 구성원 채무에 대한 저당설정도 불가하다.
- 자본금 만 달러 미만만 가능하며, 한 명 또는 복수의 자연인/법인이 실명 또는 타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 통상 저렴한 비용으로 OFFSHORE회사/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경우 많이 활용된다.

□ 주식회사: (서) Sociedad Anonima, (영) Stock company, Corporations

- 국적에 상관없이 2인 이상(최소 1인의 설립인과 1명의 기명인)의 사람이 모여 설립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 주재국 관련법은 최소 자본납입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1명의 자연인/법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다.
- 상기 설립인과 기명인이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하여야 하나(대표, 간사(비서), 회계사), 한 사람이 복수의 직무를 맡아도 무방하고 국적, 주거지의 어떠한 제약도 없다.
- 다만, 파나마 국적의 변호사 고용 또는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고, 법인등록도 파나마 국적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주식회사는 파나마 상법(Commercial law) No. 32 of 1927 및 No. 5 of 1997에 언급되어 있다.

□ 개인기업

- 개인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개인도 얼마든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또는 유한책임회사(Individual LLC) 등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다. 보통은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한다.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 상기 법 상의 합명회사, 단순유한책임조합, 주식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민영이익재단, 주식회사 등
- 파나마 현지상법은 상기와 같이 7개의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 현지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Sociedad Anonima)를 의미한다.

2) 지사/대표사무소: (서) Oficina de Representacion

-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일종의 연락사무소로, 본사에 귀속된 사무실의 개념. 따라서, 지사/대표사무소에서 채무 발생 시 본사에 이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여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세무당국과 관련된 등록절차도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과 비교 시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 특히 본사의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 관행 상 지사/연락사무소 지위보다는 정식 현지법인 지위가 금융기관 및 현지고객과의 거래 시 보다 용이하다는 점도 지사 설립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또 법인과 달리 지사의 명칭은 반드시 본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고, 특히 주소지/실체가 없는 지사는 세무당국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대표자 또는 업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 본사의 이익, 채무와 구분이 안 되는 만큼, 소규모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 진행 시 적합한 형태이며, 현지 로펌들도 업종 및 진출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개 지사/대표사무소 설립보다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을 추천하는 편이다.
- 실제로 파나마는 중남미국 중 가장 선진화된 기업법(Corporate law)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법인설립이 매우 용이하다. 주주의 국적 또는 거주지제한이나 납입자본금 제한도 전혀 없다. 따라서 실제 운영성격은 지사이나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는 아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이 많다.
-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에 준하여 동등하게 취급된다.

3) 다국적기업본부: (서) Sede de Empresas Multinacionales, (영) Multinational Enterprises Headquarters

- 파나마정부는 우수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Law 41)”을 2007년 8월 24일 제정한 바 있다.
- 동 법률은 파나마에 지역본부를 설립,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다양한 제세 인센티브 및 기업활동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다국적기업본부(이하 SEM) 활동영역

- 관할지역 관리업무(전략계획 수립, 사업개발, 인력개발, 영업/물류관리 등)
- 제품 및 제조부품 물류운송 및 보관업무
- 지사(또는 협력사) 및 최종소비자 대상의 기술지원업무
- 기업 재무관리 업무
- 기업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영업행위에 대한 데이터화 마케팅, 홍보와 관련된 자문/협력 업무
- 시장조사, 제품개발 지원업무 등

□ SEM 등록 시 혜택

- 세제혜택
 -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세 및 부가세 전면 면세
 - 단, 수출에 한하며,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임.
 -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한 임직원 급여 대상의 소득세, 사회보장세 면세
- 노무혜택
 - 사무소 운영에 필수적인 외국국적의 고급인력 채용 허용
 - 파나마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90%이상의 내국인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재원 및 가족에게 5년단위 비자(갱신가능) 발급
 - 단기 거주 기술인력에게 임시비자 발급
- 행정혜택
 - SEM 을 위한 원스탑 전용창구 운영, 배타적 서비스 제공
 - 참고자료: sem.mici.gob.pa/en/index.php

□ SEM 비자제도 변경안(Proyecto de Ley 487)

비자제도 개정안 신규 대비표

구분	구법령	개정(안)
○ 제 27조 (Artículo 27): 거주비자	노동계약기간에 한하여 최고 5 년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계약기간에 한하여 갱신횟수 제한 없이 5 년마다 연장 가능
○ 제27-A조 (Artículo 27-A): 거주자를 위한 영주권	취득 불가	다국적 기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의 거주기간이 5 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짐.
○ 제 28조 (Artículo 28): 단기 비자	기술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비자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1 회에 한하여 3 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제 33조 (Artículo 33): 세제 혜택	거주비자 소지자에 한해 처음파나마로 이주 시 가정용품 관세 면제	첫 이주 시 가정용품 관세 면제 및 매 2 년마다 한번씩 차량 수입 관세 면제(개인용 및 가족용)

- SEM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청서류(스페인어) 작성 및 서류첨부
 - 법인설립강령(charter)
 - 파나마 로펌/변호사 대리 위임장
 - 법적대표자의 Law 41 이행 선언서
 - 그룹전체에 대한 공인된 재무제표
 - 스페인어 및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번역/공증할 것
 - 거래은행의 Reference letter
- 자산규모 증빙
 - SEM 필수조건인 자산규모 2억달러 이상을 증명할 서류
 - 거래은행의 Reference letter 및 그룹의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 기타서류(SEM 자본금 2백만달러 이상의 경우)
 - 기업의 cash flow 정보
 - 주식보유량에 대한 회계사 확인서 등

다. 투자 주체별

-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방송분야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사실상 단독투자를 통한 법인설립이 현지진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 합작투자의 경우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기업공개를 꺼리는 현지 관행 상 파트너의 재력, 신뢰도, 합작의 실질적 의도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대형프로젝트 참여 등을 위한 현지 유력대기업과의 합작 외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기존기업의 주식매입 등을 통한 투자도 드문 편이다.
- 참고로 19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보호법(투자의 법적안정성 보장에 관한법, 법률 54호: 1998년 7월 22일 제정)시행과 함께 외국인 투자 시 자본금규모, 과실송금, 이윤배당 등에 대한 규제 일체를 전면 철폐했는데, 현재 파나마에는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전무하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등록 자체도 불필요하다.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1) 선호형태

- 주식회사(Sociedad Anonima)는 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을 뿐 더러 1인 등록도 가능하고, 비용도 변호사 고용비용을 포함 2~3천달러 정도로 저렴한데다, 등록기간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일주일 이내로 짧아 가장 선호하는 형태다.

2) 불가형태

- 파나마는 내외국 사업자간의 차별을 금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 형태는 없으나, 다만 소매업종, 방송분야 및 일부 전문직종만큼은 외국인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다.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소요비용(U\$)
1	사전준비	사전 조사	사무실 임대, 주거/노무 환경조사를 통한 예산계획 수립 ※ 법인등록 시 주소는 변호사사무소로 정해도 무방		
		변호사 선임	현지변호사(로펌) 선임 의무화	선임변호사	U\$600~1,500
2	설립요건 검토	이사회 선임	1인 겸임 가능	선임변호사	
		자본금 결정	자본금 예치 불요		
3	서류구비	각종증빙	변호사협의	선임변호사	
		정관작성	현지정관 스페인어 작성 및 공증	선임변호사 협의	
		주권/ Legal book	good standing/authenticity 확인서준비 ※ 주한파나마영사관 공증 필수		
4	법인등록	등기소등록	상업등기소 등록 및 등기세납부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3~4일 소요 등기세(별첨)
		영업세납부	매년 납부 의무화 (영) Corporation annual franchise duty (서) Tasa unica	국세청	U\$300/년 단, 등록 첫해는 U\$250
		영업허가 신청	- 통상산업부 운영 포털사이트 (www.panamaemprende.gob.p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모든 사업자 의무화 (서) Aviso de operacion (영)Commercial License	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국내상업 총국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U\$15/55
		기타 의무사항	- 수입세등록(Registro Fiscal) ※ 국세청홈페이지(www.dgi.gob.pa) 참조 - 지방세(Municipal Tax) 납부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 소독증명(Fumigation Certificate) 발급	- 국세청 - 관할지 시청 - 사회보장기구(CSS) - 보건부(MINSA)	
		(선택) 면허신청	* 은행/신탁회사 - 은행감독원 (Superintendence of Banks) 면허 취득 * 보험사/보험중개인 - 보험감독원(Superintendence of Insurance) 면허 취득 * 보안업체 -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면허 취득 * 요식업체 - 보건증(Sanitary permit) 취득	해당기관	

- 통상적으로 한 변호사사무실 내 복수 이상의 변호사가 법인을 자신의 명의로 세운 후,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

2) 지사/대표사무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소요비용(US\$)
1	사전준비	사전조사	사무실 임대, 주거/노무 환경조사를 통한 예산계획 수립		
		변호사선임	현지변호사(로펌) 선임 의무화	선임변호사	US\$600~1,500
2	서류구비	각종증빙	본사 법적지위 증빙/회사증서, 파나마 소재 대리인 임명서류 등		
		정관작성	본사정관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주한파나마대사관	
3	지사 등록	등기소등록	상업등기소 등록 및 등기세납부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3~4 일 소요 등기세(별첨)
		영업허가 신청	- 통상산업부 운영 포털사이트 (www.panamaemprende.gob.pa)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파나마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요 (서) Aviso de operacion	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국내상업총국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US\$15/55
		기타 의무사항	- 지방세(Municipal Tax) 납부 -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 소독증명(Fumigation Certificate) 발급	- 관할지 시청 - 사회보장기구(CSS) - 보건부(MINSA)	
		(선택) 면허신청	* 은행/신탁회사 - 은행감독원 (Superintendence of Banks) 면허 취득 * 보험사/보험중개인 - 보험감독원 (Superintendence of Insurance) 면허 취득 * 보안업체 - 국가안전위원회 (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면허 취득	해당기관	

□ 영업허가(Aviso de Operacion) 관련 참고사항

- 영업허가 종류
 - Commercial License A : 무역/도매/은행/보험업종
 - Commercial License B : 소매/대리점/부동산/레스토랑/주유소 등(내국인)
 - Industrial License : 광산/제조업/건설업
- 신청방법
 - PanamaEmprende 홈페이지 접수 (파나마 통상산업부 운영 포털)
 - www.panamaemprende.gob.pa
 - 승인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필수제출서류
 - 등기서류
 - 신청인 및 회사정보(신청자이름, 주소, 자본금, 업종 등) 양식 입력
 - 서약서 등
- 수수료
 - (개인) U\$15, (법인) U\$55 (업종에 따라 부대비용 있음)
 - 출처: KPMG PANAMA

등기소 등록비

자본금	등기소등록비
U\$10,000 이하	U\$50
U\$10,001~100,000	U\$50 외 90 센트/1,000 달러 단위
U\$100,001~1,000,000	U\$131 외 60 센트/1,000 달러 단위
U\$1,000,000 초과	U\$671 외 12 센트/1,000 달러 단위

출처: KPMG PANAMA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1) 법무 법인/회계 법인

☐ Sucre | Arias | Reyes

주소	Avenida Ricardo Arango y Calle61, Obarrio, P.O.BOX0816-01832, PANAMACITY, REP. PANAMA
전화번호	+507 204-7900(대표전화) +507 204-7925(법인설립/노무 전문변호사)
홈페이지	www.sucre.net
이메일	erickm@sucre.net
규모관련정보	파나마 대형로펌
한인/교포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 한국기업 법인설립 지원 이력 다수 - 법률, 회계 자문 모두 가능 - 파나마 외 벨리즈, 바하마 등 4 개국에 사무소 운영

☐ MENDOZA, ARIAS, VALLE & CASTILLO

주소	Edificio PH909, Piso10, Calle50 y 74Este, San Francisco, PANAMACITY, REP. PAANAMA, P.O.BOX0819-07327
전화번호	+507 270-7840(대표전화)
홈페이지	www.mavclex.com
이메일	Jrarias@mavclex.com
규모관련정보	파나마 대형로펌
한인/교포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 한국기업 법인설립 지원 이력 있음 - 정재계 네트워크 구축 - 법률, 회계 자문 모두 가능
----	--

□ BALLARD & BALLARD

주소	Torres de las Americas, Torre C, 33th floor, Boulevard Punta Pacifica, Punta Pacifica, Panamacit, Rep. Panama, P.O.BOX0832-1358
전화번호	+507 340-5100(대표전화)
홈페이지	www.ballardlaw.net
이메일	info@ballardlaw.net
규모관련정보	Joint-venture 설립 전문기업
한인/교포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파나마 외 벨리즈, 푸에르토리코 등 5 개국에 사무소 운영

□ Owens & Watson

주소	Ave. Samuel Lewis y Calle 53, Obarrio, edificio Omega, Piso2, P.O.Box0323-00015, Panamacity, Rep. Panama
전화번호	+507 300-0422/0423/0424
홈페이지	www.owenswatson.com
이메일	marauz@owenswatson.com
규모관련정보	
한인/교포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파나마 유명/우수 로펌 노무관련 전문 변호사 : Mrs. Marcela Arauz

6. 투자입지여건

가. 경제구역별 여건

임금수준, 에너지 비용 등이 높다고 해서 파나마 투자여건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파나마 국내시장에는 그러한 설명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수출가공지역(Zona Procesadora para la Exportación)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파나마의 수출가공 지역에 투자해 인근 중남미, 미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외국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창설되면 우리 업계는 미국에서는 중남미상품과, 중남미 시장에서는 미국상품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의 근거법규는 1992년 11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25호이다. 이 법에 의거해 여러 개의 수출가공지역이 설립되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가공지역은 보세가공 및 수출을 하기 위해 파나마정부가 지정한 특별구역으로 외국의 기술과 원자재를 도입해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데 적격인 곳이다.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고 파나마도 미국과의 FTA를 맺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수출가공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은 커지는 동시에 외국인 업체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가공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단순제조, 조립, 가공,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생산용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포장재, 원료 반입에 대한 조세,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수출에 따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며 자본 및 자산에 대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파나마 국내의 까다로운 노동법규를 수출가공지역 내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한다. 수출가공지역으로는 다음의 6개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중에 정상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부각되는 경제특구로는 Panama Pacifico 특구가 있는데, 구 미군의 Howard공군기지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많은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3M, DELL, CATAPILLAR 등이 이미 입주해 있으며, 파나마정부 측에서도 One-Stop 창구를 동 산업단지 내에 설치, 입주기업의 행정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www.panamapacifico.com).

파-미 FTA가 비준됨에 따라 수출가공지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및 인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파나마 수출가공지역 및 경제특구로의 투자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직 하다. 물론 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중남미 전체의 현지 시장조사를 해야 하며 사업성, 이윤성 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Zona Procesadora Ojo de Agua/PANEXPORT

- 사서함: P.O. Box 8001, Panamá 7, Panamá
- 전화: 507-273-7008
- 팩스: 507-273-7008
- e-메일: aidaum@pty.com
- 담당자: Aida Michelle U. Maduro

- 크기 및 위치
 - 크기: 31헥타르
 - 위치: 파나마 교외 San Miguelito 지역(국제공항에서 20분, 발보아항에서 30분)
- 입주업체
 - Apothecary Inc.
 - Glaxo SmithKline Beecham
 - I.M. Export American
 - Expert Diesel
 - Fenix Trading
 - Switzverdan Corp
 - Panama Line
 - Via Verde
 - International Paint
 - Research Cos. Panama
 - Kon Des International
 - CUMEPASA
 - Techno-Mill
 - De Lidia Corp.
 - Ebanisteria Cimbaue
 - Santa Cruz Beverage Corp.
 - IPIC Investment International
 - Bluntez Corp.
 - Global Parts and Machinery

2) Fort Davis Export Processing Zone(Corporación Sino Panameña de Inversiones)

- 사서함: P.O. Box 2414, Colon, Republic of Panama
- 전화: 507-473-0198, 팩스: 507-473-0590
- e-메일: pharris@ari.gob.pa
- 담당자: Pablo Harris, General Manager
- 크기 및 위치
 - 크기 21헥타르
 - 대서양 연변의 Colon 시에 위치
 -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인접
 - 원래는 대만 업체 전용공단으로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모든 나라 업체에 개방
- 입주업체
 - Moto Mundo, S.A., motorcycle assembling
 - Yin-Hsin Plastics, plastic bags manufacturing.
 - Oversea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construction contractor.
 - INCAP, S.A., glue manufacturing.
 - Uniplas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mamparas, tables).
 - Multipack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tables, mamparas).
 - TTC Corp.
 - Karma Panama

3) Proinexport Tocumen

- 사서함: P.O. Box 4182, Panama 5, Panama
- 전화: 507-292-5411, 팩스: 507-292-5583
- 담당자: Gabriel Diez, General Manager
- 크기 및 위치
 - 크기 51헥타르
 - 국제공항에 인접
 - 태평양 연변인 발보아항에서 28km 거리
- 입주업체
 - Procesos de Reclicaje
 - Vidrios Panamenos

4) Zona Procesadora de Exportación Albrook, S.A.

- 사서함: P.O. Box 1406 Balboa, Panama, Republic of Panama
- 전화: 507-263-0021, 팩스: 507-223-9712
- e-메일: info@albrookpark.com
- 홈페이지: <http://www.albrookpark.com/>
- 담당자: Luis Arrieta, President, Diogenes Ardines – General Manager
- 크기 및 위치
 - 크기 5헥타르
 - 태평양 발보아항과 인접
 -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
- 입주업체
 - Specialty Metal & Services Co.
 - Intertek Testing Services Panama, Inc.
 - Super Joyas S.A.
 - Panama Teledata
 - A&P Manufacturing Plant.

나. 콜론자유무역지대 (Colon Free Zone)

1) 콜론자유무역지대 개관

콜론자유무역지대는 1948년에 설립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파나마운하 대서양측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에 인접해 있으며 파나마시티에서는 9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곳은 파나마 국민소득의 7.7% 정도를 창출할 만큼 파나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

숫자로 보는 콜론자유무역지대의 현재(2012년 9월 기준)

연간교역량(2011년)	29,154백만달러
입주기업수(2011년)	3,065개사(Representada/Usuaría포함)
연간수입액(CIF기준, 2011년)	14,041백만달러
연간재수출액(FOB기준, 2011년)	15,113백만달러
입주기업 고용규모(2011년)	30,669명

출처: 콜론자유무역지대관리청 및 파나마감사원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는 무기류와 석유관련제품을 제외한 모든 재화의 수입, 보관, 재포장, 및 재수출에 있어 파나마 세관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어 주로 중남미국가 및 카리브도서국 등지로 재수출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 직거래 활성화라는 교역형태 변화로 그 기능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파나마경제 및 중남미교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콜론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베네수엘라가 2010년 외환통제 강화로 시련을 겪는 듯 하였으나, 카리브도서국 등으로의 거래선 다변화에 성공함으로써 최고의 전성기였던 2008년수준으로 회복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중계무역에서 수입 및 재수출액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콜론 입주 중계무역상들의 판매마진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국제 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며, 사치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수입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1953년 설립된 파나마 정부의 자치행정기구인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400ha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 하는 업체에는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조세납부 유예, 파나마인 고용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 시 배당세가 면제되며 국세나 지방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제나 영업 허가 없이 정관 및 은행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회사설립 및 영업을 가능하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창고시설 일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 시설을 건설. 토지 임차는 최대 20년까지 가능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기존 창고시설을 구입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중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대리점 계약은 콜론자유 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됨)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창고시설을 임차

2) 콜론자유무역지대 영업 형태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재수출
- 파나마 내수시장에 판매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품을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수출
- 콜론자유무역지대내 다른 업체에게 판매

다. 바루자유무역지대 (Colon Free Zone)

한편 코스타리카 국경 인근에 바루자유지역(Zona Franca de Baru)이 새로이 지정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상에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바루지역은 코스타리카 인접한 치리키(Chiriqui)주 아르무에에(Amuelle)항에서 약 30분 거리이며 파나마시에서는 자동차로 7~8시간 소요된다. 파나마 정부는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루 자유지역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주업체는 중계무역, 보세창고 운영, 복합운송, 포장, 양하역작업, 조립 등의 활동에 있어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준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1992년 파나마정부는 석유수출지대(Zonas de Exportación de Petróleo; PEZs)를 지정, 국내외기업이 석유의 생산, 정제, 석유 및 석유 파생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수출지대(PEZs)에서 바로 파나마운하를 통하거나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파나마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파나마 소재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주요 PEZs로는 Petroterminal de Panamá, Refinería de Panamá, Atlantic Pacific, Decal Panamá, Ogden Aviation Services, Petroport, Alíreza Mobil Terminal, Parque Industrial Marítimo de Panamá 등이 있다.

(자료: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 바루자유지역)

7. 노무관리

가. 고용

파나마에는 특별한 고용절차가 없으며 주로 신문광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여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서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고용계약이 체결된다. 고용계약의 형태에는 무기한계약, 한정기한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한정기한 계약의 경우에는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훈련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술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계약 체결 당시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한정기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특정 프로젝트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한정기한계약 또는 특정 프로젝트 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인력

현재 파나마 노동인구 중 80%가 민간 부문, 20%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단순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져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며, 반대로 고급 인력은 찾기 힘들어 상당히 높은 급여를 각오해야 어렵사리 채용이 가능하다. 임금은 과테말라 등 주변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중상류층의 미국 유학이 보편화되어 있어 타 중남미국에 비해 영어구사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다. 임금

파나마의 임금수준은 공장생산직 월 400달러, 사무직 여직원 대략 월 700달러, 대졸 남자 사원 월 800~1,300달러 수준을 형성한다. 다국적기업 평균 월급은 이보다 높은 1,700달러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급여는 노동법 및 관행 상 매월 15일과 말일 2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최저임금은 2012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었으며,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된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매 2년 마다 검토, 필요 시 인상하고 있다.

또한 임금 이외의 비용으로 매 4개월마다 월 급여의 1/3을 지불하는 법정상여금(Decimo Tercer Mes)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직종 별 시간당 최저임금(2012년 1월 1일부 적용)

(단위:US\$)

직종	지역1	지역2
광산개발	2.14	2.14
제조업	(중소기업)1.76 (대기업)2.14	(중소기업)1.47 (대기업)1.77
도매업	2.14	1.76
소매업	(중소기업)1.74 (대기업)2.14	(중소기업)1.45 (대기업)1.76

자유무역지대.특구	2.36	1.76
정보통신	2.14	2.14
금융.보험	2.36	2.36

*출처 : 노동부(MITRADEL)

*지역1 : 파나마시티, 콜론, 다비드 등 대도시, 지역2 : 기타지역

라. 외국인 고용

파나마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파나마 노동 및 사회복지부로부터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노동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파나마정부는 파나마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무직의 경우 10%, 기술 및 전문직의 경우 15% 이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중 파나마인과 결혼한 사람, 파나마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파나마국적자로 간주된다. 단, 파나마에서 단순히 영업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현지인 사회보장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사회보장기금 제도를 2005 년 하반기부터 개선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발로 재개정, 2006 년 1 월 1 일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파나마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파나마 국민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국제기구, 외교관 및 영사관을 제외한 파나마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개인사업가도 이에 해당한다.

1)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

- 고용자(2005. 12. 31 까지 근로자 소득의 11.25% 부담)
 - 2006. 1. 1~2007. 12. 31: 근로자 소득의 10.75%
 - 2008. 1. 1~2010. 12. 31: 근로자 소득의 11.50%
 - 2011. 1. 1~2012. 12. 31: 근로자 소득의 12%
 - 2013. 1. 1부터: 근로자 소득의 12.25%
- 근로자(2005. 12. 31 까지 본인 소득의 8.25% 부담)
 - 2006. 1. 1~2007. 12. 31: 본인 소득의 7.25%
 - 2008. 1. 1~2010. 12. 31: 본인 소득의 8%
 - 2011. 1. 1~2012. 12. 31: 본인 소득의 9%
 - 2013. 1. 1부터: 본인 소득의 9.75%
- 개인 사업가(2006. 12. 31까지 사회보장세 부담 의무 대상 미적용)
 - 2007. 1. 1~2007. 12. 31: 본인 소득의 9.5%
 - 2008. 1. 1~2010. 12. 31: 본인 소득의 11%
 - 2011. 1. 1~2012. 12. 31: 본인 소득의 12.50%
 - 2013. 1. 1부터: 본인 소득의 13.50%

2) 파나마 사회보장제도 수혜 범위

가) 질병

- 진단 및 치료, 수술, 약품류, 치과치료, 입원
- 질병으로 인해 18일 이상 결근 시
- 수혜자 범위
 - 가입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일 경우 25세 미만), 어머니, 60세 이상의 아버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나) 임신

- 임신 중, 출산, 산후 건강쇠약과 출산휴가비
- 신청 전 8개월 중 최소 4개월 분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수혜 가능함

다) 장애

- 질병 또는 육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근로자 때 받았던 보수의 1/3 이하를 받게 되었을 경우
- 보상 조건
 - Comisión Prestación 에서 장애자 판정
 - 불구자가 되기 전 최소 36개월 분 보험료 지불
 - 36개월 분 보험료 중 18개월 분은 최근 3년 내에 납부
-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일어난 장애(이 경우 직업위험 보상금 수령)
 - 고의로 발생한 장애
 - 정년퇴직 연령 후 일어난 장애

라) 사망(사망한 가입자의 생존 가족에게 지급)

- 보상조건
 - 단, 가입자가 사망 전 최소 36개월 분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하고 36개월 분 보험료 중 18개월 분은 최근 3년 내에 납부된 것이어야 함

마) 장례보조금

- 가입자의 사망 직전 12개월 중 6개월 분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장례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금액: 250.00달러

3) 직업 위험 사회보장

직업 위험을 커버하는 사회보장제도는 1970.3.31일자 행정명령(Decreto de Gabinete)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구(Caja de Seguro Social)가 정한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자료: 법령 제 17호)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정 서비스세, 영업세(Franchise Tax), 교육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나. 국세

1) 법인소득세(Impuesto sobre Renta)

파나마 법인소득세율은 2011년부터 25%로 낮아졌다. 다만, 이동통신, 은행, 전력, (재)보험, 카지노 등은 2012년까지 기존 법인세율인 30%가 유지되며, 이후 27.5%, 2014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법인자본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30%가 적용된다.

더불어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가 실행령명령(No.98 de 27 de septiembre de 2010)에 의해 2011년 1월 1일부 시행되었는데, 기존에는 법인소득세를 전년도 소득에 근거하여 산출, 납부하였다면, 지금은 익월의 소득추정액에 대한 소득세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법인 소득세 사전납부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www.dgi.gob.pa)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개인소득세(Impuesto sobre Renta)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 조세개혁에 의해 7월 1일부로 소득세 징구체계가 바뀌었는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결혼부부에 대한 공제는 800달러 수준이며, 주택자금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15,000달러까지 공제된다. 기타 학자금대출, 건강보험 등도 공제 대상이다. 민간연금의 경우에도 연간 최대 15,000달러 범위 내에서 총소득의 10%까지 공제 대상이다.

파나마에 연간 183일 이상을 체류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파나마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과세기준 (연간소득, 달러)	소득세율 (%)
~11,000	면세
11,000~50,000	11천달러 초과분의 15%
50,000~	5,850달러 + 50천달러 초과분의 25%

3)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ITBMs)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판매세가 부과되며, 주류(10%), 담배(15%), 호텔세(10%) 등은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 또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지대 거래
- 전기 발전, 배전
- 해상,항공,육상 운송 등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부가세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세금을 재정경제부(MEF)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표시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사회보험료(Seguro Social)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험(Seguro Social)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2년 1월부터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25%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9.75%를 부담한다. 근로자 부담 분은 고용주가 원천 징수한다.

4) 특정 서비스세

1991년 조세개혁법으로 케이블 TV, 경호수송서비스, 안전금고 임차에 대해서는 5%의 특정 서비스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매월 12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영업세(Franchise Tax)

콜론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쉐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 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6) 교육세(Impuesto de Seguro Educativo)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 납부액은 근로자 급여의 2.75%로, 이중 1.25%는 근로자 부담, 나머지 1.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근로자 부담 분은 원천 징수한다. 한편 자영 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 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 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기구에 납부한다.

7) 부동산세(Impuesto sobre Bienes Inmuebles)

파나마 소재 3만달러 이상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달러 이상~5만달러까지는 1.75%, 5만달러 이상~7만 5,000달러 이하는 1.95%, 7만5,000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나마 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기준 (연간소득, 달러)	소득세율 (%)
~30,000	면세
30,000~50,000	1.75
50,000~75,000	1.95
75,000~	2.1

8)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표준가격이란 재정경제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9)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관계 및 양도 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10)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물품 소비세가 부과된다.

11)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12)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 상업은행은 2만 5,000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 5,000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13)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 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재정경제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14) 기타 조세

이 밖에도 유류소비세, 시장영업세, 카지노세, 항공권구입세 등의 조세제도가 있다.

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출처 : 파나마 관보)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8조 국으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GAFI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른바 'tax haven'이라는 말도 듣고 있으며,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국내외 금융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자료: IMF, 현지 실사)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규모 및 특성

파나마는 비록 인구 340만 GDP 300억달러 수준의 소국이나, 미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등 경제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중남미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남미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운하를 통한 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결통로이자 남북미주 연결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남미 해운의 중심지이며 편의국적선 제도(open register shipping flee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시장(1인당 명목GDP 8,590달러, PPP기준 1인당 GDP 20,066달러)이지만 부의 편재가 심하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대단히 높고 값싼 제품보다는 고급품 위주의 구매패턴을 보이는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가격 위주의 소비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저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국민정서 및 손쉬운 은행대출 덕분에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은 수준급이다. 최근에는 미국제품의 아성을 깨고 한국, 일본산 제품이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31%에 육박하는 등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이다.

특히 파나마하면 콜론자유무역지대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미주 제일의 중계무역기지로 교역규모는 291억달러(2011년 기준)에 이르며, 그 중 중계무역을 위한 수입액이 약 140억달러(CIF기준), 재수출액이 151억달러(FOB기준)에 달한다(2012년 6월 기준 최신자료).

나. 파나마 비즈니스의 핵심코드, 중국계 비즈니스

파나마 내의 소매, 잡화, 미니슈퍼마켓 중 90%는 중국인 소유의 비즈니스이다. 중국인 노동자는 19세기 중반 파나마에 철도가 처음 생길 때 철도 건설노동자로 파나마에 첫발을 디뎠다. 20세기 초 파나마운하 건설 당시부터 시작해 현재 중국인 3세대, 4세대에 이르면서 중국인 비즈니스는 파나마경제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비즈니스는 일상생활용품, 식당, 식료품 등 상품의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성업을 이룬다. 파나마시티 시내의 일반소매상점은 물론이고 산골벽지 및 밀림지역의 초라한 구멍가게까지 어김없이 중국인이 운영한다. 겉보기에 중국인은 파나마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실제로 이들 중국인의 보이지 않는 경제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질시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파나마 전체 인구 약 340만 명 중에서 중국인은 5%를 차지하며 이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약 1만 개이다. 주로 저소득층, 서민, 빈민 등을 상대로 하는 저가품을 취급하지만 워낙 저변시장이 넓고 모두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판매량은 엄청나다. 최근에는 취급업종을 대폭 확대, 중국/대만 등지에서 수입한 첨단제품을 취급하면서, 한국제품 취급상인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다수 들어서면서 중국인 비즈니스와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 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후에는 중국인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누려 온 독보적인 지위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서구식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상승한 반면 중국인 가게 등 소매업에 대한 선호도는 차츰 내려 가고 있다. 그만큼 파나마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차츰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도 다양화해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국인 소매 비즈니스와 슈퍼마켓은 그 시장이 많이 다르다. 전자는 인구 밀집지, 저소득층 밀집지, 산간벽지, 지방 등인 반면 슈퍼마켓은 도심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Procter and Gamble 파나마 현지법인 사장인 David Jimenez 씨의 전언이다. 중국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소비자에게도 매우 싼 가격으로 팔지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평균 30%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출신지역인 중국의 광둥 지방 친지, 업체 등과 긴밀한 연고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므로 한국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제품의 아성을 극복하고 그 수준에 맞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 유통구조

1) 개요

파나마는 제조업이 매우 미약한 관계로 유통구조는 수입품 유통이 주종을 이룬다. 파나마의 유통구조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된 물품이 일부 파나마 국내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 전달되는 체제와 대형 연쇄점이 물품을 직접수입 또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여 일부 물량을 자사 연쇄 체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콜론 중계무역상은 대부분 수입업체 겸 도매상으로 외국·콜론 외국업체·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중남미 다른 국가 바이어에게 재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 중간 도매상, 소매상에게 공급한다.

파나마의 도매 유통은 대부분 콜론을 통해 수입된 물량 중 일부가 도매상을 통해 파나마에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파나마 도매상이 콜론 내 외국기업 현지법인이나 콜론 도매상, 수입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도매유통 마진율은 대부분 10% 수준이나, 대규모 체인점 또는 수입상이 콜론자유무역지역/외국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마진율이 30% 이상이다.

소매유통은 비교적 큰 규모의 연쇄점과 일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쇄점은 주로 가정용 전기제품, 의류, 화장품, 문구류, 완구류, 가구 등을 취급하며 최근에는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재 판매의 65%는 파나마시가 차지하며 나머지 35% 정도는 David, Colón, Santiago, Chitré 등의 도시 몫이다.

일반적으로 파나마에서는 수입상이 도매상, 소매상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다. 의류, 자동차 부품, 컴퓨터하드웨어 부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며 독점 에이전트, 대리점 등의 제도도 널리 이용한다. 주요 수입상 대부분은 파나마 시내뿐 아니라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유통 채널을 갖고 중계무역에 종사한다.

국내산제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은 전혀 없지만 외국인이 현지에 와서 소매유통업에 종사할 경우 약간의 규제가 있다. 파나마업체와 독점 에이전트 등의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규정하는 국내법은 없으며 오직 해당 외국업체와 파나마 국내업체 간의 계약에만 의거할 뿐이다. 따라서 분쟁발생 경우나 계약 종료 시에 대비해 상호 간의 권리 의무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은 고급제품에 관한 한 미국식 문화와 규격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이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제품이 주도하는 남미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업체를 방문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품의 최종 시장 가격은 제품의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유통 단계별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 CIF 가격: 100.00달러
- 수입관세: 10.00달러
-
- 합 계: 110.00달러

- 도매 가격: 137.50달러
- 소매 가격: 171.88달러

2) 유통구조

파나마의 대표적인 대형유통망은 El Rey, Super 99, XTra, Machetazo, Riba Smith 등 슈퍼마켓 체인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업체는 일반 소매상권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그 외에도 Price Smart라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할인매장이 있으며 미국산 중저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다. 위의 5개 슈퍼마켓 체인이 일종의 "왕국"을 형성해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물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파나마 국내의 수입상, 에이전트 등을 통해 구입한다. 유통체인의 최종 시장가격은 제품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슈퍼마켓 유통 단계별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에이전트 → 슈퍼마켓 체인: 수입가의 20~30% 마진 형성
- 슈퍼마켓 체인의 소매: 상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마진 형성(식품 15~20%, 일반 공산품 및 가정용 제품 25%, 건축자재 및 부속품 종류 30~40%)

El Rey, Super99, XTRA, Riba Smith, Machetazo 중에서 가장 큰 곳은 Super 99로서 전국 27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이 유통조직에 납품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해 문의한 결과, 구매조직은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각 산하 체인의 수요량을 파악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산하체인이 위치한 지역, 소비자, 소득수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산하체인의 요구에 의해 구매한다. 그러나 산하체인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산하체인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찾는 물품을 파악해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들 유통업체의 각 제품별 담당자는 대부분 가장 밑바닥 점원에서부터 시작해 그 상품 분야에는 전문가로 시장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학력 수준이 낮고 어디까지나 실무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공급업체 직원에게 저속한 말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그만큼 이들 유통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매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XTRA는 유대인 자본으로 최저가 중국제품 위주의 판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4월 중국 광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방문해 수시로

제품을 물색한다. 품질관리, 고객만족 서비스보다는 1센트라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업체가 공급업체를 대할 때에는 제품이나 품질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일단 가격부터 묻는 것이 다반사다. El Rey, Super 99는 그나마 품질이 나은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며,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고객을 타깃으로 한다. Machetazo는 쿠바인 자본으로 설립된 슈퍼마켓인데 역시 XTRA와 비슷한 수준의 물품을 판매한다.

기타 RibaSmith는 고가/고급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으로,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는 한마디로 구매자(유통체인)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소유주의 막강한 경제력, 정치력이 이에 한몫 한다. 다수의 국회의원, 고위 관료, 기타 주요 기업체 사장 등이 이들 유통업체와 친척인 경우가 많다. Super99은 현 Martinelli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

3) 유통산업 특성

물품은 항상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직접 슈퍼마켓에 배달해 주어야 한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면서 공급업체가 슈퍼마켓의 창고까지 인도해 주고 검수를 받는 것이 상례이며 슈퍼마켓 체인업체는 이러한 공급업체의 어려움, 노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슈퍼마켓 체인과 비즈니스를 맺을 경우 상시적인 물류(logistics)조직, 운송장비를 갖추어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필수이다. 보통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 인도 시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물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 100% 반품에다가 물건 값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금 결제는 100% 외상 결제이다. 슈퍼마켓 체인 치고 현금으로 즉석 결제해 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으며 보통 120일, 150일, 길게는 1년, 2년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대금 지불 지연으로 소송을 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 능력을 지닌 이들 업체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법률소송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늦더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고 납기지연에 클레임 해봐야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반응이라고 한다. 그것도 최초 납품하는 경우에는 공짜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유통, 물류, 중계무역 등 상업 위주로 성장해온 바탕에 그 원인이 있으며, 특히 가격경쟁이 극도로 치열해 공급자보다는 구매자가 항상 값이 된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체인에 가보면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중국산 일색이다.

파나마 수출유망상품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남미에서도 빈부차가 가장 큰 국가로서, 중산층이 매우 얇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소비재의 경우,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유럽, 미국, 일본산 고급 브랜드 시장과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중국, 동남아 등 저품질, 저가 시장이 양립해 있다. 한국산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가 품질의 우수성은 인정 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 고급품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서민층 수요에 대해서는 중국, 동남아산 저가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제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소비자 인식 등에 있어서의 진출 제약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일본제품에 버금가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망 진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시장상황 및 폐쇄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납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다. 특히 이들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중개상을 통해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중개상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 중간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제품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유통업체

간의 가격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으로, 이는 한국 제품의 진출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업체의 경우 파나마 중계상이 선호하는 매년 4월의 광동 전시회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중남미 현지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자료: 현지 실사)

2. 물가정보

(2012년 9월 24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USD)	출처
식 품 류	쌀 (5파운드 기준, MAHATMA-미국산)	7.98	REY
	계란 12개(TOLEDANO CLARIPAK)	1.03	REY
	쇠고기 등심(1파운드 기준, 등심-파나마산)	3.80	REY
	닭고기(Toledano사, 2파운드 기준)	4.08	REY
	우유 1갤런(BONLAC GRADO A)	2.50	REY
	식용유 1.42L(KING GOURMET-미국산)	6.95	REY
	생수 0.5L(Volvic)	1.11	REY
	맥주(하이네켄 병맥주, 개당가격)	0.79	REY
	담배 1갑(말보로 라이트)	4.15	REY
	햄버거(버거킹 와퍼 기본세트)	5.60	BURGER KING
	김치찌개 1인분	12	친니친니(한국식당)
의 료 비	의료보험료(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00	Liberty Insurance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50(상담40, 진료110)	상동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5(상담10, 진료25)	상동
차 량 관 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1,500	Tucson IX
	무연휘발유 1갤런(옥탄가95)	4.69	DELTA
	자동차 등록비	29	교통국(ATTT)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700	GENERALI
교 통 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50	공영주차장
	지하철 기본요금(1구간)	-	-
	시내버스 기본요금(METROBUS) *카드구입 필수 : \$2.00/카드	(간선)0.25 (외곽고속도로)1.25	메트로버스공식홈페이지 (www.tarjetametrobus.com)
	택시 기본요금 *구간에 따라 상이(별첨 택시요금표 참조)	1.00~3.10	ATTT (www.transito.gob.pa)
통 신	시내전화 요금(1분) *가정용 기본약정 기준(Plan Residencial Basico, 월정액 U\$8.05)	0.04	Cable&Wireless
	국제전화 요금(1분, 한국으로 걸 때)	0.15	Cable&Wireless
	국제전화 요금(1분, 한국	0.20	

	휴대폰으로 걸 때)		
	휴대전화 요금(음성통화200분 포함 약정기준)	19.90	CLARO
	데이터 요금(4G, 월 사용량 3GB 포함)	14.90	
	인터넷 월사용료(5mbps 서비스)		Cableonda
	인터넷 월사용료(3mbps)	41.95	
	*외국인의 경우 U\$75 보증금 부과(환불 가능)	24.95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20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500	Costa Pacifica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10,000	ISP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11,000	ISP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12,000	ISP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정상요금(싱글, 10%세금별도)	약170	MIRAMAR Intercontinental
	중급호텔(비즈니스) 1박정상요금(싱글, 10%세금별도, 무역관 특별요금)	110	HILTON GARDEN-INN
임금/ 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300	파나마직업소개소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25	파나마직업소개소
	매니저급 급여(인사담당 5년경력 과장급 월급여)	2,5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3개월	
	연간 국경일수	22일	
	주5일 근무 여부	예	
기타	드라이클리닝(정장 1벌 기준)	약4.50	Dry Clean(업소명)

파나마 구간별 공식 택시 요금표(시내 기준)

Detalle		Zonas						
		La Boca, Calzada de Amador	San Felipe, Chorrillo, Santa Ana, Ancón	Calidonia, San Miguel, Albrook, Altos de Diablo	Punta Paitilla, Bella Vista, Universidad, Hospital del Seguro Social	Punta Pacifica, El Dorado, Las Sabanas, Bethania	Pmá Viejo, Rio Abajo, Villa de Las Fuentes, Los Libertadores	Costa del Este, Chanis, Auto Motor
		1	2	3	4	5	6	7
Zonas	1	1.00	1.35	1.70	2.05	2.40	2.75	3.10
	2	1.35	1.00	1.35	1.70	2.05	2.40	2.75
	3	1.70	1.35	1.00	1.35	1.70	2.05	2.40
	4	2.05	1.70	1.35	1.00	1.35	1.70	2.05
	5	2.40	2.05	1.70	1.35	1.00	1.35	1.70
	6	2.75	2.40	2.05	1.70	1.35	1.00	1.35
	7	3.10	2.75	2.40	2.05	1.70	1.35	1.00

출처 : 파나마교통청(ATTT, www.transito.gob.pa)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대개의 업종마다 협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정책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이 주된 역할이다 보니 협회 회원사 디렉토리북, DB제작상태가 부실하며, 소속 회원사를 제외하고는 잘 공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옐로페이지 또는 콜론자유무역지대 업체 디렉토리인 FOB지 등이 거의 유일한 검색수단이다. FOB지는 업체명/품목순으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회원사의 광고도 많아 검색이 편리한 편이나,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파나마 대표 국제전시회인 파나마종합박람회(Expocomer) 참여도 매우 좋은 수단이다. 동 박람회에는 파나마 바이어뿐 아니라 인근 중미국, 심지어는 브라질 바이어도 대거 참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참가업체들이 많다. 동 전시회는 매년 3월에 개최되며, 4일간 진행된다. 중남미 소재 종합박람회로는 유일하게 한국관이 개설되는 전시회이며, 2011년에도 아국 16개기업이 참여, 다수의 현장 계약 성사를 비롯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에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 거래선 발굴은 상기한 FOB지에 수록된 지도를 참고,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위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콜론 입주업체들은 관례상 외부인의 방문에 익숙하다 보니, 관심품목일지라도 수출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잘 만나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상담을 의뢰할 때는 파나마시티에서의 미팅을 제안하기 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료: 현지 실사)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파나마인들은 온라인 상의 자사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고, 업데이트도 부실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바이어발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인터넷에서 획득한 이메일 주소로 접촉하는 경우 심중팔구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기업이 애간장이 타는 경우가 많다. 현지 상관습 상 이메일 문의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첫 접촉 시에는 유선접촉을 통해 먼저 관심을 표한 후, 담당자 및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거래제안 등 이메일 교신을 시작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파나마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panacamara.com)는 업종 별 회원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어 한번쯤 방문해볼 만 하다. Directorio de Miembros > Por Sector의 메뉴를 클릭, 업체별 주요연락처 및 업태, 수출입 품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업체별로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직접 업체 홈페이지로 이동,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자 협회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홈페이지(www.auzonalibrecolon.com)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파벳순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업종별 검색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Directorio de Miembros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두 기관은 서반아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서반아어를 모르는 경우 검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 KOTRA 서비스 활용

파나마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KOTRA의 주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이어찾기’ 조사는 현지 관련기업을 1:1 접촉하여 관심도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된 유망바이어(5개사 가량) 리스트를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이다.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Buykorea(www.buykorea.or.kr) 사이트 방문도 권장한다.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입수한 한국산 제품 수입의사를 실시간으로 무료 검색할 수 있다. 기타, 지사화사업, 공동물류사업 등도 파나마무역관의 핵심사업으로, 파나마 시장개척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KOTRA홈페이지 참조, www.kotra.or.kr).

*자료: 파나마 상공회의소,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자 협회 등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사항

특이한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는 편이나 매년 2-3 월에 개최되는 '물의 축제' 기간 중에는 내 외국인들을 막론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때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물세례가 한 해의 재앙을 막아주는 축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세례 대신 색종이가루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또 국민 중 다수가 흑인 또는 흑인 혼혈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종적 편견, 차별감 등을 절대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유통업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전자제품시장은 인도계, 직물시장은 아랍계, 기타 중소 슈퍼점은 중국인계의 점유율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인종, 종교문제 등 민족문제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파나마 내국인에게 있어서 대미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나 미군 주둔 시 파나마 대학생이 미군 관할 구역 내 파나마국기 게양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노리에가 집권 시 미군침공 사태 등이 있어 반미감정이 높은 파나마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나마 주권과 관련된 지나친 친미적 언사나 정치·외교적 견해는 삼가야 한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상담을 위하여는 사전 약속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며 상담 시 복장은 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 중남미 타국가들에 비해 기업인들의 영어회화 실력은 수준급이며 영어 구사력을 엘리트층의 필수조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설픈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 스페인어로 한다면 높은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동양인이 어눌한 스페인어를 쓰면 중국상인이라고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특성 상 이메일 등 서신에 대한 답신이 늦기 십상인데, 이때 지나치게 재촉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이메일로만 연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사정설명과 함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파나마 시장은 중계무역의 특성상 품질보다는 가격을 위주로 하는 재수출용 수입시장인 만큼 가격 위주의 상담진행이 효과적이다. 이 쪽의 가격을 보이기 전에 그들의 수입가격을 먼저 물어보면 수입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바이어가 많으며 심지어 경쟁수출업체의 오퍼까지 보여 주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품질상 장단점을 솔직히 비교 분석해 주면서 그 가격에 근접하게 또는 경쟁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상담은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파나마 국내시장을 상대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필히 소량다품종 수주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중국, 동남아 국가에 가격경쟁이 밀리는 품목이라도 고정거래처를 확보할 수도 있다.

라. 미국 제품에 대한 향수, 중국 제품 선호

전통적으로 파나마운하가 미국에 의해 관리되었고 미국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때문에 미국식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 문화, 제품, 규격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미국을 자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산업제품, 일반 생활용품 등의 면에서 미국적인 디자인, 산업규격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과의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말로는 미국인을 욕하는 태도와 상반되기도 한다. 여타 생활용품, 소비재 등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원 : 현지 실사)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파나마는 소매업, 의료, 통관대행사, 방송 등 일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은 특별 제한 및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인 심사를 통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 개발과 같은 공공성 및 수익성이 높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파나마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관광, 보험, 은행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이 없으며 파나마산 부품 및 기자재 사용 의무도 없으나 고용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의 현지인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파나마는 제조업이 전체 GDP의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조업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연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평균임금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통신, 전력 등 산업 인프라 요금이 비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예: 마킬라도라 산업)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조립산업 등은 콜론자유무역지대라는 중계무역기지에 대한 마케팅과 파나마 운하 양안 항구를 이용한 대 중남미 물류기지 역할을 함께 활용할 경우 장래성이 있다고 보인다. 물론 물류 절감 비용이 제로나 단순 조립 시설 유지 추가발생 비용보다 높고 콜론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마케팅 및 공급기간 단축 등이 강점으로 작용해야 성공적인 투자진출이 가능하다.

한편 무역거래 시 D/A, D/P 등 외상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거래 조건의 경우 사고위험이 크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부보로 외상거래를 관리함은 물론 계약서나 Confirmed Offer 상에 “분쟁 시 우리나라(또는 파나마)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 삽입과 양측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서류가 있으면 문제 발생 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내용)가 양국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삼성전자의 LCD/LED TV 시장 진출 성공 사례

1) 일반현황

“1강 다약 체제”로 알려진 세계 가전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이 중남미에서 서서히 일고 있다.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 전자가 세계 가전시장에서의 절대강자로 알려진 일본 Sony를 제치고 최강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Sony 브랜드만을 고집하던 중남미의 부유층들이 이제는 삼성전자와 LG 전자제품으로 선호 브랜드를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남미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초박형 LED TV 이다. 파나마 대형 전자제품 양판점 진열대 중 최고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삼성과 LG제품이 들어서서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양판점 직원도 최고의 TV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삼성과 LG를 손꼽는다.

2) 현지 마케팅 전략

삼성 및 LG의 중남미 TV시장 진출 성공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바로 ‘품질’ 및 디자인에서 발 빠른 행보로 타 경쟁사와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초박형 LED TV를 구경하는 고객들의 입에서는 연발 감탄사가 쏟아져 나오고, 일본 가전제품 매장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중남미에서 더 이상 “다약” 브랜드가 아니다. 최강의 가전브랜드 Sony를 멀찌감치 뒤로 한 채 독보적인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삼성전자는 가전 비즈니스에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장기적인 기업 성공의 열쇠임을 인식하고 삼성전자 해외법인 특히 중남미 현지법인(파나마)에서는 “삼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파나마 법인은 매년 연간 매출액의 10%를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마케팅 소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자와 개별 제품 판매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TV 광고, 신문광고 등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활동 이외에 중남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기 가수 초청 공연 행사 등 각종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판촉활동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각종 ‘파나마 불우이웃 돕기’ 행사이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외국기업이 현지에 나와서 돈만 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파나마 부유층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친숙하고 우정과 애정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중남미 시장에서의 파나마 LCD TV 성공 사례는 삼성전자의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 품질 경쟁력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LCD TV 는 다른 경쟁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월등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현지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나. 로만손 시계의 손목시계 시장 진출 성공 사례

1) 일반 현황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산 시계 수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로만손 시계가 중남미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중남미 고급 시계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국산 시계 수출이 어려운 것은 중남미의 수요 구조가 우리 수출상품의 구조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남미는 수요구조가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산층이 매우 얇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의 수요상 특징은 품질과 디자인은 우수하지만 브랜드가 없다는 단점을 가진 한국산 시계의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남미에서 빈부 격차가 심해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롤렉스, 오메가, 브로바 등 고급 시계만을 선호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3~5달러짜리 저가 홍콩산 시계만을 찾다 보니 수출 가격이 20~40달러대로 평균 100달러 내외로 판매되는 한국산 시계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로만손 시계는 중남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며 고급 브랜드로 매년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현지 마케팅 전략

로만손 시계가 1990년대 처음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에도 지금과 시장상황은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의 시계 바이어들은 한국산 무명 브랜드인 로만손 시계를 보면서 브랜드 인지도는 약한 반면, 가격은 비싸서 회의적인 반응만을 보였다.

이에 로만손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소재한 교포 무역업체인 Gold way사에 중남미 유통을 맡겼다. 로만손 시계의 중남미 수출을 담당하게 된 파나마의 Gold way 사는 이러한 시장상황 하에서 정상적인 수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초기 시장 진출 단계에서는 위탁판매를 시작했다. 위탁판매란 즉 주요 시계 체인점을 대상으로 시계를 공급하고 팔린 다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또한 Gold way사는 타깃 수요층을 소수의 부유층과 중산층으로 선정하고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Gold way사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제품의 구성을 과감하게 변경한 것이다. 로만손 시계는 판매가격 100달러 내외가 주 수출품이지만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롤렉스나 까르띠에 등과 같은 최고급품과 동일한 상품을 일반 수출품과 같이 시장에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Gold way사에서는 취급 제품 중 일부를 판매가격 1,000달러에서 최대 5,000 달러의 최고급품으로 구성하여 맛보기로 시장에 내놓고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심도록 했다.

대부분의 손목시계는 백금이나 순금 도금 제품이 주종을 이루지만 이러한 최고급 시계는 흠집이 나지 않는 최고급 사파이어 글라스에 내장 역시 도금이 아닌 다이아몬드나 18k 순금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동 제품들은 로만손 시계의 스위스 주문품으로 소량 제작되어 파나마에 수입된 것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항공 기내 잡지에 매번 제품 광고를 게재하고 미디어 광고, 여성잡지 광고, 그리고 도로 주변의 입간판 제작 등을 통해 로만손 시계의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시계 취급점 등을 대상으로 한 제품 설명 리셉션 등을 주최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홍보 전략과 병행하여 중남미 각국별로 딜러를 선정하여 이들 딜러로 하여금 마케팅을 담당하고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Gold way사에서 로만손 본사가 지원하는 딜러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로만손 시계의 품질이 우수해 실제로 A/S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A/S 체제 구축 대신 제품 하자에 대해 100% 무상 교환 체제로 A/S 체제를 운영하였다. 고급품으로의 정착을 위해 조그만 흠집이나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즉시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전략을 통해서 로만손 시계가 고급품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였다.

3) 시장성과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덕분에 중남미에서 로만손 시계는 중가품 시계가 아닌 고급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성과로 로만손 시계는 중남미 지역에 연간 5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 내외의 높은 수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남미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남미의 경기가 호전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배경으로 수출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임차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나, 일반 주택은 도난 상의 문제가 있어 아파트 (벌레 및 방범을 고려하여 6층 이상 유리) 입주가 편리하며 아국 지상사 주재원들은 주로 Punta Pacifica, Paitilla, Marbella 지역에 살고 있다. 주택 계약은 주재국 주택 관련법에 의한 계약서(소정 양식)로 작성되며 일부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부속계약서를 첨부한다.

1) 입주 시 유의사항

최근 신축한 아파트도 많으나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배수관계, 출입문, 에어컨 설치 여부 등 각종 시설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조그마한 탈이 자주 난다.

2) 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관계

본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외에 사용 때문에 생긴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으며 주택 이전을 원할 시 통상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하면 된다.

나. 은행 구좌 개설

파나마는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로 90여개의 금융기관 지점이 진출해 영업 중이며, 한국 외환은행도 진출해 있어 은행구좌 개설, 송금 등 금융서비스 이용은 용이한 편이다. 다만, 외환은행 파나마지점에서는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발급을 희망할 경우 현지은행 또는 외국계은행 신용카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통 카드 한도액만큼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등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참고로 달러가 공식화폐인 관계로 미국신용카드 이용 시 환전수수료 등 일체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이사 화물, 자동차 구입

현지 TV 및 VCR은 한국과 같은 NTSC방식이며 전기는 110v를 사용한다. 주택 임차 시 가구 포함 여부는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한국에서 쓰던 가구를 가져 오는 것이 경제적인 편이다. 이삿짐 발송은 보통 Door-to-Port로 파나마의 하역항에서 자택까지 운송료 (100~200달러) 및 통관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이삿짐 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18~23%수준으로 여타 중미국 대비 판매가는 저렴한 편이다(산타페 가솔린 2.7L 기준 28,000달러 내외).

많은 자동차메이커가 진출해 있어 선호에 맞는 차량구입이 가능하며, 현대,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30%를 육박하는 등 한국차량의 인기가 높아, 아국차량 구매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부분의 차량은 기본옵션으로 수입된다.

라. 한국 식품 조달여건

한국식품 전문매장은 없고 중국인 식품점(Minimax)에서 일부 취급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충분한 양을 항상 공급하지 않아 한국식품 구입여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동매장에서 배추, 파, 무, 두부 등과 같은 식자재는 구입 가능하나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제법 비싸다. 기타 현지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는 저렴하다. 참고로 쌀은 캘리포니아산 또는 일본산 수입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끔 재고가 없어 구입에 곤란을 겪을 때가 있다.

마. 생필품 조달

El Rey, Super99 등 대형 유통체인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각종 생필품 구입은 어려움이 없으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파나마산 식료품을 제외하면 생필품 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 과일 및 가공식품은 미국산이 많은 편이다.

바. 레저 여건

열대우림 등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하나, 잘 개발된 관광지나 휴양지는 드물어 전반적인 레저 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또 비용 대비 시설이나 서비스수준도 낮다.

- 골프: 파나마 시내 중심에서 3~40분 내외 거리에 3개의 골프장(Summit Golf Club, Tucan Golf Club, Panama Golf Club)이 있으며 회원 가입 용이
- 테니스 및 수영: 호텔 스포츠클럽, 해변, 아파트, 풀에서 테니스 및 수영 가능
- 낚시 및 잠수: 콜론(파나마에서 1시간~1시간 반 거리)지역에는 바다 낚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안이 있음.
- 여행:
 - Cerro Azul: 시내에서 1시간 거리로 해발 3,000ft 고지. 기온이 15도로 시원
 - Coronado: 시내에서 90Km 거리에 있는 해안지대로 수영, 골프, 숙박 시설 겸비
 - El Valle: 시내에서 2시간 거리로 시원한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동식물원, 폭포, 승마 등을 즐길 수 있음.
 - Contadora: 비행기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의 섬으로 각종 해양스포츠에 안성맞춤이며, 다양한 숙박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파나마에서도 손꼽는 휴양지.
 - Chiriquí: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7시간 걸리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로 등산과 이국적인 꽃과 커피농장을 볼 수 있음. 무더운 파나마에서 벗어나 한국의 가을철과 비슷한 기후와 고요함을 즐길 수 있음.

사. 병원·약국

일반 진료 시 진찰비로 통상 40~50달러를 지불하고, 처방약은 약국에서 별도로 구입한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의사 별 실력 차가 커, 현지인 또는 주재원에 사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각종 수술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 치안 상태

치안은 타 중남미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각종 강력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도 치안개선이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현정부 지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치안과 관련된 국가 전반의 우려는 높은 편이다.

자. 자녀 교육여건

한국인 초·중·고생 자녀는 주로 ISP(International School of Panama)와 발보아 아카데미(Balboa Academy)에 다니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스페인어와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인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이 이 학교에 다닌다.

발보아 아카데미는 미군이 주둔하던 당시 미군 자녀들을 위해 운영했던 학교(Fort Clayton에 위치)로, 현재도 미국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SEK International Institution, Saint Mary School, The Oxford School, Oxford International School 등 다양한 bilingual school이 있다.

3~5세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 상기 학교 유치원에 다니거나 Happy Kids, Mundo del Niño 등 파나마 시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닌다.

1) 초·중·고 교육

- 학제 개요
 - 초등교육(Primaria): 6 년
 - 중등 교육(Secundaria): 6 년
 - 의무교육 연수: 9 년
- 교육비: Balboa Academy의 경우에는 입학 기부금 6,500 달러에 분기당 1,500 달러 (중학교 이상, 국민학교는 분기당 1,240 달러), ISP의 경우 입학 기부금 8,500 달러에 분기당 1,500 달러 내외임.
- 학교 선정 시 유의 사항
 - 두 학교 모두 시설 및 교육의 질이 높으며, 차이점은 ISP에서는 스페인어와 파나마 역사 등 사회 과목 이수가 필수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졸업 후 미국 또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면제되므로 한국인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수도 비슷하다.
- 입학 절차
 - 소정의 서류 제출, 인터뷰, 간단한 영어,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 실시
- 필요 서류
 - 전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사본 및 예방접종 증명서
- 유치원: 상기 학교 내 유치원 및 Pre School이 있음.

- 한글학교: 대만학교 건물을 임차, 운영하는 토요 한글학교가 있음.
- 학생수 65여 명, 수업료 월 35 달러

2) 대학교

- 학제
 - 파나마 국립대학교(학생 4만 5,000명)와 국립공과대학(학생 1만 1,000명), 두 개의 국립대와 가톨릭계 사립대학교인 Universidad Santa María La Antigua(학생 5,000명)가 있음. 학제는 4년제이며,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6년제임.
- 교육비
 -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전공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 학기 등록금이 45달러이고 사립 대학은 과목당 33달러 정도
- 입학 요건
 - 고교 졸업자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학시험을 통과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함. 이 과정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 필수 교양 과목을 이수하든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외국 유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파나마 역사, 미국-파나마 관계 등 3과목)를 이수해야만 정식으로 등록이 가능함.

(자료: 현지 실사)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파나마의 기후는 적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연중 고온다습하며,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는 열대우림기후에 가까운 특색을 보인다. 우기에는 날씨가 맑고 뜨겁다가도 순식간에 먹구름이 생기고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1~2시간 가량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러나 카리브연안국이 흔히 겪는 허리케인 등 폭풍 등은 없으며 비가 온 후에도 즉시 빗물이 증발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버린다. 다만,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할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성인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는 침수구간이 곳곳에 발생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고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차량침수사고도 빈번하므로 우기 차량운행 시 큰 주의를 요한다.

홍수로 인한 재해는 드물며 그 정도도 크지 않다. 간혹 인근 코스타리카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그 여진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건기는 1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계속되며 우기는 5월부터 시작되어 12월 초순에 끝난다. 높은 기온이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현지인들은 건기를 여름, 우기를 겨울이라고 부른다.

건기에는(12~4월)에는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야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등 불쾌지수가 높지 않다. 그러나 3월 말 정도가 되면 이미 공기가 후덥지근해지고 습도가 올라가 마치 한국의 장마철과도 흡사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 하다가 4~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비가 오지만 우리나라 한여름 무더위보다는 덜 덥게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엘니뇨(El Niño) 현상으로 통상적인 기후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인다.

파나마의 연간 기후(평균)

월	강수량(mm)	평균기온(c)	평균습도(%)	평균기압(mb)	평균풍속(knot)
1	11.9	27.2	64	1,008.9	11
2	16.7	27.7	63	1,009.3	8
3	20.8	28.1	61	1,008.8	9
4	94.1	28.4	64	1,008.6	7
5	285.3	22.9	36	907.2	4
6	272.7	28.5	74	1,009.0	4
7	129.6	22.8	58	807.1	4
8	263.6	28.0	75	1,008.9	4
9	207.1	28.3	73	1,009.1	5
10	275.7	27.6	77	1,008.9	7
11	336.8	27.7	75	1,008.4	5
12	137.0	27.6	67	1,009.3	9
평균	170.9	27.0	65	983.6	6

*출처: 파나마감사원(2012년 9월 기준)

- 파나마의 일일 날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 <http://www.hidromet.com.pa/>(전력회사 ETESA 에서 운영하는 기상정보 제공사이트)

□ 출장 시 추천복장

더운 기후 때문에 현지인, 특히 남성은 일반적으로 넥타이, 긴 소매 셔츠 등 정장 차림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며 직장·업체·사무실·공공기관에서도 가벼운 남방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여름 양복에 긴 소매 와이셔츠를 갖추는 것이 무난하다. 보통 사무실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어 반소매 차림으로는 한기를 느끼며 감기에 걸리기도 쉽다.

(자료: 현지 실사)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GMT 보다 5시간, 한국보다 14시간 늦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침 9시일 때 파나마는 전날 밤 7 시이다. 따라서 업무상 현지와 전화로 연락하기는 불편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연락 하는 것이 나은 편이다. 미국의 뉴욕, 마이애미 등과 시간대가 같으며 미국이 서머타임을 실시 할 때는 미국보다 1시간 늦다. 파나마는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연중 시각이 항상 같다. 연중 밤낮의 길이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일교차도 크지 않다.

2) 근무 시간

은행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객을 받으나 오후 3~4시까지 근무한다.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다음 월요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나, 불확실한 경우 관보(Gaceta Oficial)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매년 12월은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많고 기업체도 일찍 퇴근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공무원 근무시간: 09:00~16:30(이민국 08:00~14:00)
- 은행 개점 시간: 08:00~13:00
- 일반 기업체: 08:00~17:00
- 일반 상점: 09:00~20:00(Super99, Rey 등 일부 대형수퍼마켓은 24시간 영업)

3) 회계 연도

정부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파나마운하관리청의 경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다.

(자료: 현지 실사)

다. 도량형

1) 도량형

파나마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몸무게, 슈퍼마켓 등에서의 제품 중량 및 부피, 몇몇 가전 제품 용량 등에서는 인치, 야드, 파운드, 온스, 갤런 등 미국 도량형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구분	단위
길이	Km(거리), 인치(가전), 야드(골프)
중량	파운드(서어 : libra)
면적	평방미터(서어 : metro cuadrado)
액체	리터(서어 : litro)
유류	갤런(서어 : galón)

2) 전기 규격

주로 110V, 60Hz를 사용하며 일부 호텔, 공장, 박람회장, 아파트에서는 에어컨용으로 220V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110V이기 때문에 프리볼트 제품을 가져오거나 변압기를 구입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프리볼트 전자제품을 가져오더라도 현지에서 판매하는 플러그어댑터는 A-C타입으로 한국식(F타입)과 호환되지 않으므로, 필히 한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자료: 현지 실사)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2001년 7월 José Miguel Alemán 파나마 외무부 장관 방한 시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한-파나마 사증 면제협정이 2001. 8.9일부로 발효해 "조약 제1569호"로 공포되었다(관보 14868호, 2001.8.4자).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입국일부터 180일(약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체류할 수 있다.

- 주한 파나마 대사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 전화: 734-8610/2
 - 팩스: 734-8613
 - 근무 시간: 09:30-12:00, 13:30-17:00, 토요일 휴무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무비자 6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항공권 발권 시 Tourist Card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비자면제 협정 사실을 알려 주면 된다. 파나마시티 인근지역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황열병, 말라리아 등 특정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2) 출입국 심사 및 통관

여행자는 담배 25갑, 시가 50개 및 술 3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하며 과일, 채소, 식품, 꽃, 동물 등은 검역 대상으로 규제한다. 한국에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갖고 올 경우 세관 직원이 세밀하게 검사하므로 삼가야 한다.

최근 광우병이나 조류 독감으로 인해 식품에 쇠고기 또는 닭고기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규제하고 있어 가급적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에 처음 부임하는 사람들의 이삿짐에 이러한 식품 종류가 포함돼 있어 반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예방 접종

입국 시 요구하는 예방접종은 없다. (단, 파나마 체류 후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황열병(yellow fever) 접종을 동 국가들에 입국하기 10일 전에 받고 접종 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4) 외환 신고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

5) 공항 ↔ 시내교통편

입국 심사 및 검역 검사를 마친 후 나오면 바로 앞에 TAXI라고 쓰여 있는 부스가 있다. 파나마 관광청(ATP: Autoridad de Turismo Panama)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행선지를 말하면 택시를 불러준다. 요금은 행선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30달러 정도이다. 공항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파나마 시티 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에는 일반 택시도 무방하나 가급적 콜택시, 투숙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 또는 공항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항 셔틀의 경우 1인당 약 10달러이며 택시는 20~30달러 사이이다.

(자료: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현지 실사)

마. 환율/환전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국과의 통화 협정에 의거, 자체 화폐를 발행 하지 않고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dollarization)로 사용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공식적으로 미 달러를 발보아(Balboa; B/)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1달러 이하 동전만을 주조하여 미화 동전과 혼용해 사용한다. 따라서 환율은 항상 US\$1 = B/1 이다. 미화 동전은 파나마 내에서 사용되나 파나마 동전은 파나마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미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남미 다른 나라처럼 환율 변동에 따른 환 위험이 없으며 환전 개념도 없다. 파나마가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로 크게 발돋움한 것은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외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까닭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가는 비싼 편으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지폐, 동전 모두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50달러 이상의 고액권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액권(50달러, 100 달러 등)은 거스름돈 바꾸기가 어려우며, 항상 잔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1달러나, 25 센트, 10 센트 등 잔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택시 운전사에게 10달러 이상의 고액 지폐를 주면 잔돈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항상 발생한다. 중남미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소액은 은행에서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파나마에 오기 전에 아예 미화로 환전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상점, 식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신용카드는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료: 현지 실사)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파나마 국적항공사인 COPA Airlines에서 LA-파나마 직항노선을 매일 2회 운행함에 따라 파나마 방문 시 인천-LA-파나마시티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인천-애틀란타-파나마시티도 출장자들이 애용하는 노선이나, 파나마 도착시간이 저녁 9시로 늦다는 것이 단점이다. 뉴욕(JFK공항) 경유 노선의 경우 환승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뉴욕 발 파나마행 항공편은 Newark 및 JFK공항 모두에 기항하고 있어 탑승 공항 확인은 필수다. 환승 공항이 다른 경우 뉴욕의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충분한 환승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대로 귀국 항공편은 어느 노선이든 환승시간이 길다.

미국에서 중남미 행 비행기로 갈아 탈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2~3시간)를 갖고 수속을 마쳐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남미행 항공편에는 오버부킹 사례가 많아 늦게 수속한 사람들의 짐이 같이 오지 못하고 다음 날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중남미 출장 시에는 선진국과 같이 모든 것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고 만약에 파나마 등 경유지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 연락처를 상시 휴대해야 한다.

2) 국내교통

파나마시티의 경우 METROBUS가 도입 완료단계에 있어 과거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나아졌으나, 노선이 불분명하여 초행자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택시이용을 권한다. 다만, 러시아워 동안에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파나마택시에는 미터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출발 전에 흥정을 하여야 나중에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보통 미화 2~5달러 정도면 파나마시티 내 웬만한 거리는 다 갈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대신 차량상태 및 서비스 품질은 매우 떨어진다. 길거리 합승도 빈번하다.

호텔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반택시 대비 3~4배 가량 비싸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택시회사는 América Libre라는 회사로 택시 윗면에 회사명을 달고 다닌다(전화번호: 215~2062). 한편 콜론자유무역지대로 출장할 경우에도 택시를 하루 전세 내는 것이 편리하다(왕복 150달러 내외). 콜론자유무역지역에서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등록차량 외 출입이 금지되어 택시는 콜론자유무역지역 출입구까지 이용하고 그 안에서는 걸어 다녀야 한다.

시외버스는 대부분의 주요도시로 연결되며, 기차는 파나마시티에서 콜론시까지 연결되나, 관광열차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하루 왕복 1회만 운행한다(오전 07:15 파나마발-콜론착, 오후 5:15 콜론발-파나마착).

국내 비행사로 Air Panama(www.flyairpanama.com)가 있으며 국내공항이 있는 도시는 David, Bocas del Toro, Darién, El Porvenir, Colón, Contadora, Isla San José 등이 있다. 정기항공편을 운항한 Aeroperlas는 회사사정으로 국내선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국내항공편은 국내선 전용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Marcos A. Gelabert)을 이용해야 했으나, 현재 일부 노선(Bocas del Toro행만 가능)의 경우 Tocumen국제공항에서 직접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항공사 사전 확인요망).

3) 통신료

국내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으로 파나마 시내의 경우 1분에 5센트이며 콜론시외 전화의 경우 1분에 15센트이다. 각 통신사별로 유선전화간 통화는 전국 무제한 무료로 통화하는 요금제도 선보이고 있다.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휴대폰에 전화하는 경우 분당 33센트이며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 하는 경우 분당 약 35센트(요금제에 따라 약간의 차등)가 부과된다.

4) 특송(DHL)

특사배송 시 DHL, Fdax, UPS 등이 권장되며, EMS특송은 door-to-door운송을 하지 않아 직접 수령까지 약 2~3주 가량 소요된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비즈니스호텔

호텔	상세정보
○ Paitilla Inn - 주소 : Via Italia, Punta Paitilla - 전화 : 507-208-0600 - 홈페이지 : www.plazapaitillainn.com	- 파나마만 해안가 위치 - 요금(싱글) : \$110~120/일
○ Courtyard by Marriott - Via Israel Multiplaza Pacifica Mall - 전화 : 507-301-0101 - 홈페이지: www.marriott.com/hotels/travel/ptycy-courtyard-panama-real-hotel/	- 파나마 최대쇼핑몰 Multiplaza 내 위치, 교통 편리 - 요금(싱글) : \$160~170/일
○ Four Points Hotel by Sheraton - 주소: Calle 53 Marbella y Avenida 5a. B Sur, P.O. BOX 832-0239 WTC, Rep. of Panama - 전화: 507-265-3636 - 홈페이지:www.starwoodhotels.com/fourpoints/property/overview/index.html?propertyID=1472	- 파나마 World Trade Center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파나마무역관 소재 빌딩과 콤플렉스를 이루고 있어 무역관 이용자에게 편리하다. - 요금(싱글) : \$140~160/일
○ Hilton Garden Inn - 주소: Ave. Eusebio A. Morales y Calle49 A oeste, El Cangrejo, Bellavista, Panama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301-9999 - 홈페이지:http://www.ghlhoteles.com/hotel/home/39_hilton-garden-inn--panam.html	- 호텔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많다. - 요금(싱글) : \$110/일

고급호텔

호텔	상세정보
○ Hard Rock Hotel Panama Megapolis - 주소 : Avenida Balboa Boulevard Elhayek al lado de Multicentro - 전화 : +507 294-4000 - 홈페이지 : www.hardrockhotels.com/panama.aspx	- 요금(싱글/더블) : \$135/일(세금포함) - *2012년 10월 한 특별요금
○ RIU Plaza Panama - 주소: Calle50 con 53 este, Urbanizacion Marbella, Ciudad de Panama, Rep. of Panama - 전화: 507-378-9000 - 홈페이지: www.riuplaza.com/es/hotel-riu-panama-plaza/	- 스페인계 호텔체인으로 가장 최근에 개장하여(2010년 9월)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며, 파나마시티 교통중심가 위치 - 요금(싱글) : \$145/일
○ MIRAMAR INTER-CONTINENTAL - 주소: Plaza Miramar, Avenida Balboa, P.O.BOX 7336 Panama 5, Rep. of Panama - 전화: 507-206-8888 - 홈페이지: www.miramarpanama.com	- 파나마 시내 바닷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 요금(싱글) : \$ 170~200/일
○ SHERATON HOTEL & Convention Cneter - 주소: Via Israel y Calle 77, San Francisco P.O.BOX 6-4268 Rep. of Panama - 전화: 507-270-0477 - 홈페이지: www.sheratonpanama.com.pa	- ATLAPA 전시장 맞은편에 위치해 파나마국박람회참가 시 편리 - 바닷가 근처로 전망 우수 - 요금(싱글) : \$170~180/일
○ MARRIOTT HOTEL - 주소: Av. Ricardo Arias y Calle 52 Area Bancaria P.O.BOX 832-0498 WTC,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507-210-9100 - 홈페이지: www.marriott.com/hotels/travel/ptypa-panama-marriott-hotel/	- 금융중심가 위치 - 요금(싱글) : \$170~180/일
○ Le Meridien - 주소 : Calle Uruguay y Avenida Balboa, Panama City, Rep. of Panama - 전화 : 507-297-3200 - 홈페이지 : - www.starwoodhotels.com/lemeridien/property/overview/contact.html?propertyID=3259	- Miramar Intercontinental 맞은편에 위치 - 요금(싱글) : \$200/일 이상
○ HOTEL EL PANAMA - 주소: Via Espana 111, P.O.BOX 1753 Panama1, Rep. of Panama - 전화: 507-215-9000 - 홈페이지: www.elpanama.com	-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로 Via Espana중심부 위치 - 요금(싱글) : \$140~160/일

아파트형호텔

호텔	상세정보
○ APARTAHOTEL TORRES DE ALBA - 주소: Calle Eusebio A. Morales y 55 - 사서함: P.O.Box 87-4392 Zona 7, Panama - 전화: 507-269-7770 - 홈페이지: www.torresdealba.com.pa	- EL PANAMA HOTEL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형호텔로, 취사 가능 - 요율(싱글) : \$99~134/일
○ ESPLENDOR Hotels Boutique - 전화: 507-290-9696 - 홈페이지: www.esplendorpanama.com	- 저렴한 가격에 스위트급 고급객실 제공 - 요율(싱글) : \$160/일

(자료: 각 호텔 홈페이지, 현지 실사 등)

2) 식당

파나마시티에는 세계 각국(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스위스 등)의 식당과 파나마 전통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으며, 가격은 비싼 편이다. 그러나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된 음식이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알려진 파나마 전통식은 많지 않으며, 그나마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는 Sopa de Marisco(해산물수프), Sangocho(닭고기수프, 삼계탕과 유사)등을 권할만 하다. 그밖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도 기름에 볶은 쌀밥, 햄, 소시지, 콩(현지어로는 poroto, lenteja)을 푹 삶은 것이 대부분으로, 음식마다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거나 익혀서 지방 함량이 대단히 높아 담백하고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에는 맞지 않는다. 고지방 음식으로 인해 비만 환자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파나마 어디를 가든지 도처에 중국식당과 일식당이 있으나,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한국인의 식성에는 잘 맞지 않는다. 한국식당은 친니친니, 서울식당 두 곳이 있다.

□ 한국식당

- 서울식당
 - 주소: Vía España y Calle 46 Venezuela
 - 전화: 264-2785
- 친니친니
 - 주소: Via Porras #51 San Francisco(99수퍼 맞은편)
 - 전화: 390-6566

□ 현지식 및 외국 식당

- El Trapiche
 - 주소: Via Argentina, Edf. Alejandra
 - 전화: 269-4353
 - 주요리: 파나마 전통 음식
 - 참고: 파나마의 다양한 토속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파나마 음식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들러야 할 식당이다. 파나마인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 현지인 중에서는 이 식당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만큼 유명한 식당이다.

- Gaucho's Steak House
 - 주소: Calle 48 Casa No. 20V, La Esquina Calle Uruguay, Bella Vista
 - 전화: 263-1405
 - 주요리: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parrillada, asado)
 - 참고: 가격은 비싼 편이나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아르헨티나 산 고기는 구제역병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 고기를 쓴다고 한다. 파나마에서는 가장 좋은 스테이크 식당 중 하나이다.
 - BENIHANA
 - 주소: Calle 60 E, Obarrio
 - 전화: 263-9817
 - 주요리: 일식
 - 참고: 우동, 회, 데판야끼 등으로 유명하고, 파나마 고급쇼핑몰인 Multiplaza 에 자리잡고 있다.
 - TRES CALINI
 - 위치: FELIX MADURO 백화점 뒤편에 위치
 - 전화: 269-9951
 - 주요: 이탈리아 요리
 - 참고: 파나마에서 이탈리아 요리로는 가장 유명한 식당이다.
 - LA CASA DEL MARISCO
 - 위치: Avenida Balboa
 - 전화: 223-7755
 - 주요리: 해산물
 - 참고: 실내 장식이 매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 LAS TINAJAS
 - 주소: EL EJECUTIVO HOTEL 주변의 Calle 51, BELLA VISTA
 - 전화: 269-3840
 - 주요리: 파나마 전통 요리
 - 참고: 파나마 고유의 요리법으로 유명하며 파나마 전통무용 공연이 있다.
 - Lung Fung(龍鳳)
 - 위치: Avenida Transistmica
 - 전화: 260-4011
 - 주요리: 중국요리
 - 참고: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중국식당이며, 아침에는 종류별로 다양한 딤섬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Golden Unicorn
 - 위치: Evergreen 빌딩 4층
 - 전화: 226-3838
 - 주요리: 중국요리
 - 참고: 비교적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다양한 중국음식을 제공한다. 웨라톤호텔과 가까우며 전면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 (자료: 현지 실사)

아. 관공서 관행

대체적으로 민원처리가 매우 더디고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있다는 점은 고질적인 병폐다. 동양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배타적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나 요건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우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직업 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정실주의(파나마에서는 이를 favoritismo, nepotismo라고 부름)가 보편적이어서 정권 교체 때마다 고위급, 하위직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대거 교체된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까지 대민 업무를 끝내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 중으로 용무를 마치는 것이 좋다. 가기 전에 모든 서류, 자료, 날인, 서명 등을 100% 구비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작 당사자는 아무리 일이 바쁘고 급해도 서류 하나라도 모자라면 다시 돌려보낸다. 불일 보러 온 사람에게 봉사한다기보다는 명령, 지시한다는 태도가 강하다.

(자료: 현지 실사)

자. 공휴일과 주재국 방문 시기

□ 현지 축제 등 장기 휴일로 주재국 방문을 피해야 할 시기

카니발(2월 20~22일), 부활절(4월 5~6일)을 끼고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 거래선과 사전협의를 요한다. 특히 카니발은 연중 최대행사로, 물의 축제도 겸하고 있고 중심으로 대부분이 시민들의 축제를 위해 전면 차단되어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11~12월에는 법정공휴일이 많고 장기휴가를 쓰는 사람도 많아 사실상 비즈니스가 힘들다.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익일(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도 출장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2012년 주요 법정공휴일

일시	공휴일	일시	공휴일
1월 1일	Año Nuevo (신년)	8월 15일	Fundación de Panama la Vieja (구파나마설립일)
1월 9일	Día de los Mártires (순교자의 날)	11월 3일	Separación de Panamá de Colombia (대콜롬비아 독립일)
2월 21일	Martes de Carnaval (카니발)	11월 5일	Día de Colón (콜론설립일)
2월 22일	Miércoles de Ceniza (재의 수요일)	11월 10일	Primer Grito de Independencia (독립선언일)
4월 5일	Jueves Santo (성목요일)	11월 28일	Independencia de Panamá de España (대스페인 독립일)
4월 6일	Viernes Santo (성금요일)	12월 8일	Día de la Madre (어머니의 날)
4월 7일	Sábado Santo (성토요일)	12월 24일	Noche Buena (성탄전야)
4월 8일	Domingo de Resurrección (부활절)	12월 25일	Navidad (성탄절)
5월 1일	Día del Trabajo (노동절)	12월 31일	Fiesta de Fin de Año (연말)

(자료: 현지 실사)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 준비

□ 의복 준비

파나마는 적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므로 가벼운 하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에어컨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비즈니스에는 긴 소매 와이셔츠에 여름 정장 등을 주로 착용한다.

□ 전기 규격

파나마의 전기 규격은 안전을 중시하는 미국과 같은 110V 60Hz이다. 일부 호텔이나 아파트에는 220V 단자도 있긴 하나 보편적이지 않아서 110V/220V 겸용(Free Voltage) 전자제품을 준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용량에 맞는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2) 여행 여건

□ 치안

파나마는 여타 중남미국가에 비해 치안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마약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지대로 알려진 Paitilla, Punta Pacifica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San Miguelito, Chorrillo 등 구시가지는 현지인 조차도 왕래를 꺼리는 우범지대로 접근을 절대 삼가야 한다.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양인을 “치노(중국인을 칭하는 말)”라 부르며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우편 주소가 없기 때문에 거리 이름과 번지수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건물 옆의 큰 장소, 전화국 옆의 큰 약국, 어느 길 모퉁이" 등과 같이 어림짐작 또는 경험으로 장소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인들은 명함에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주소를 표기한다.

시내의 경우 택시비는 2~5달러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잡을 수도 있으며,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다. 호텔 전용 택시의 경우는 일반 콜택시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나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편리하다.

□ 팁 관행

식당에서는 10% 내외의 팁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택시는 팁이 없다.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가방당 1달러 정도의 팁이 보통이며 투숙 호텔에서 침실 청소를 하는 사람을 위해 침대 위 눈에 띄는 곳에 침대당 1달러 정도 놓아 둔다.

□ 식수

연중 비가 많이 오는 나라로 수질이 좋기 때문에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한다. 물론 슈퍼마켓에 가면 생수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Panamá)는 “생선과 물이 많다”라는 원주민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 물가

파나마는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비싼 편에 속하지만, 평균 관세율이 중남미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 공산품 관세가 5~15% 이며 농산물 등 식료품은 무관세(자국 생산품 제외)가 많다.

그러나 쌀, 감자 등과 같은 자국 생산 농산물은 관세가 매우 높다. 일반 상품 이외의 서비스 요금(예: 전화 기 수리, 컴퓨터 수리, 인터넷 등)은 한국에 비해 대단히 비싸지만 기술력, 서비스 품질은 굉장히 떨어진다. 간단한 전자기기 수리도 한달 가량 걸리는 것이 다반사다.

3) 건강 유의사항

□ 건기

12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건기 철 기간에는 직사광선이 강해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우기

4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우기에는 습한 기후에 의한 피부염 및 모기에 의한 뎅기(dengue),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 현지 실사, 파나마관광청)

카. 유용한 연락처

1) 한국대사관 및 KOTRA

□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 전화: (507)264-8203, 264-8360, 269-2257
- 팩스: (507)264-8825
- 주소: Calle 50, Torre Global Bank, Piso30, Obarrio, Panama City, Rep. of Panama
- 홈페이지: <http://pan.mofat.go.kr>

□ 파나마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Panama)

- 전화: (507)264-8105, 264-7970
- 팩스: (507)264-0928
- 사서함: P.O. Box 0832-2250, W.T.C., Panama, Republic of Panama
- 주소: Oficina 1801/1802, Edificio "World Trade Center", Calle 53E, Marbella, Bella Vista, Rep. de Panama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panama/>
- E-메일: leeh818@kotra.or.kr

파나마에는 우편배달부 제도가 없어 일반 우편물은 반드시 P.O. Box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DHL, Express Mail 등 특사배달의 경우,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배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경우는 반드시 P.O. Box를, 특사로 보낼 경우는 실제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2) 한인 단체

- 한인회: (507) 441-8530 *한인회장 김강석
- 한인교회: (507) 315-1901
- 한인가톨릭공동체: (507) 430-9930

3) 파나마 주요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경찰	104	Centro Medico Paitilla응급실	265-8888
소방서	103	Centro Medico Paitilla대표번호	265-8800
재난신고	335 316-0080	Hospital Punta Pacifica응급실	204-8184
적십자	455	Hospital Punta Pacifica대표번호	204-8000
앰불런스	911		
수도고장신고	523-8653	전화고장신고	123

(자료: 현지 실사)

타. 관광 명소 및 주요 쇼핑 센터

1) 주요 관광지

파나마의 관광정보는 파나마 관광청(Autoridad Turismo de Panama, <http://www.atp.gob.pa>) 혹은 동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visitpanama.com에서 입수할 수 있다. 파나마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이다.

가) 파나마 운하(Canal de Panamá)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 중 하나인 파나마운하는 1881년 프랑스가 시공한 이래 미국이 완공한 1914년까지 64억 달러가 투입, 2만5,000여 명의 인명이 희생됨과 동시에 절토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만리장성을 쌓기에 충분한 엄청난 대역사물이다.

배를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산정호수로 끌어올리는 3단계 갑문식으로 하루 평균 33척의 배가 횡단하고 있는데 MIRAFLORES 갑문(시내에서 30분 거리)과 GATUN 갑문(한시간 거리)에서 대형선박의 통행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선박이 운하를 통과할 때마다 사용되는 용수는 5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과 동일 하다. 현재 공사 중인 제2 갑문은 Reservoir를 통해 담수를 재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나)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

미주지역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대서양 쪽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 (파나마 시티에서 85km)해 있다. 자유무역지대에는 3천여개의 무역업체가 중남미 전역을 상대로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데, 유태인, 아랍계, 중국계 및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 가운데 한국 교포 무역인 및 지상사도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콜론자유무역지대의 배후도시인 콜론시는 파나마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화되어 치안이 불안하다. 따라서 단독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안내인을 동반하거나 택시를 임차하는 것이 좋다.

다) 산블라스(San Blas)

대서양 쪽 연안에 있는 150여 개의 섬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Kuna 인디안들이 자치제를 이루어 살고 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인디안 부락촌을 볼 수 있다. 파나마시티에서 경비행기로 접근 가능하며 콜론 쪽에서는 선박 편으로 갈 수 있다.

라) Bambito와 Boquete

파나마 시에서 서쪽으로 약 500km를 달리면 COSTA RICA와 국경 지대인 치리키 주의 Bambito와 Boquete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은 해발 7,000피트 높이 산이 있어 '작은 스위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규모 국화 재배, 경마 사육장, 송어 양식장 등이 있고 등산을 즐길 수 있다.

마) Panamá Viejo

파나마에 현존하는 스페인 시대의 제일 오래된 유적지로서 1519년에 건설되어 식민지 노획물을 스페인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기지이다. 1671년 영국 해적 Morgan의 침입을 받아 폐허화되었으나 현재 그 잔해가 남아 있어 관광지가 되었다. 위치는 파나마 시내 태평양 연안에 있다.

바) Los Pueblitos

파나마 시내에 위치한 일종의 민속촌이다. 파나마의 전통 가옥, 의상, 토산품 등을 전시해 두었으며 야간에는 민속 무용 공연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1인당 1달러이다.

사) Contadora 섬

파나마시티에서 60km거리의 태평양 연안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현지인들에게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다. 호텔 및 민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스쿠버다이빙, 바다낚시를 할 수 있다. 경비행기로 20분 거리이며 선박으로는 약 두 시간가량 소요된다.

아) Coronado 해안

파나마시티 서쪽 8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고, 경관이 수려하며, 수도에서 가깝고 파나마 부유층 별장이 즐비하게 운집되어 있다. 호텔, 현대식콘도, 미니골프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지이다.

자) Portobelo 항구와 Isla Grande 섬

대서양 쪽 160km 지점, 카리브 해안에 위치한 Portobelo항에는 스페인왕조 점령 당시의 요새와 성당 등이 남아 있다. Portobelo에서 차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La Guaira라는 작은 어촌에 도착하는데, 이곳 선착장에서 작은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Isla Grande 섬은 해변이 수려한 곳에 스쿠버 다이빙 및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호텔 등 숙박 시설이 있다.

차) Panarail Tourism

파나마운하 근처 태평양에 마주한 Balboa에서 Colon까지 운행하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차 여행 코스이다.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시 일부 철로가 파괴, 운행 중단되었으나 Kansas City Southern社가 50년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하 통항 컨테이너선을 보조하는 상업용도뿐 아니라 관광열차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운하수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앞에 펼쳐진 호수와 밀림의 경관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하루 1회 왕복, 소요 시간 1시간(07:15 Balboa 출발 08:15 Colon 도착, 17:15 Colon 출발, 18:15 Balboa 도착) 이다.

카) Casco Viejo(San Felipe)

Casco Viejo 지역은 1800년 초 건축된 도시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여 UNESCO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대통령 궁을 비롯하여 주요 관청과 프랑스 대사관, 운하 박물관, 광장, 성당 및 빈민촌이 함께 어우러진 건물들이 건축 당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슬럼화되어 있어 야간에는 위험하며 낮에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타) Museo del Canal Interoceanico de Panama

파나마 운하의 역사 박물관으로 파나마운하 공사 당시의 건축 기자재 및 미국의 파나마 운하 인도 조약서 진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다.

파) Amador Causeway

파나마시티를 마주하고 있는 태평양 상의 4개 섬(Naos, Culebra, Perico, Flamenco)을 잇는 제방도로로 필히 방문 해야 할 관광명소이다. 당초 파나마운하 보호를 목적으로 제방을 쌓았으나 이후 미군이 군사요새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공개, 공원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섬과 파나마 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폭은 약 10m 정도로 양 옆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산책을 하기에 안성맞춤 이다. 섬 안에는 다양한 식당이 있다 (<http://www.flamenco-island.com/spanish/index.php>).

하) Puente de las Américas(Bridge of the Americas)

파나마운하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길이 3Km의 해상 아치형 다리로 말그대로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다리 북쪽으로 계속 가면 파나마를 지나 코스타리카, 중미, 멕시코, 미국에까지 이르며 남쪽으로는 파나마시티와 연결된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파나마 운하의 선박, 푸른 바다, 항구 등의 모습이 장관이다.

2) 주요 쇼핑 센터

가) Multiplaza

Israel Avenue에 위치한 최고급쇼핑몰로 약 180개의 상점이 모여 있다. 명품점이 밀집해 있으며 백화점 쇼핑도 가능하다. 의류, 가정 및 부엌 용품, 신발, 서적, 주류, 액세서리, 선물용품 등이 주요 품목이다. Courtyard(Marriot)호텔도 함께하고 있다.

나) Albrook Mall

Albrook터미널에 위치한 쇼핑몰로 파나마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장한 대형 쇼핑몰이다. 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푸드 코트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다양하여 가족 단위로 놀러 가기에 적합한 곳이다.

다) Multicentro

Balboa Avenue에 위치한 쇼핑몰로 약 145개의 상점이 모여 있다. 주요 품목은 의류, 가정 및 부엌 용품, 신발, 서적, 주류, 액세서리, 선물용품 등이다. 이 외에도 카지노, 영화관, 나이트, 레스토랑, 푸드코트가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도심 문화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영업 시간은 월~수 10:00~20:00, 목~토 10:00~21:00, 일 11:00~19:00 이며 영화관, 식당가는 좀 더 늦게까지 운영한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 파나마종합박람회 2013 (International Commercial Exposition)

가) 전시회 정보

- 개최시기: 2012/04/17 ~ 2010/04/20
- 개최주기: 매년
- 규 모: 12,000 sqm
- 개 최 국: 파나마
- 개최도시: 파나마시티
- 개최장소: Atlapa Convention Center

나) 2012년도 개최 내역

- 참가규모: 32개국, 참가업체 514개 업체, 참관객수 7,399명(토요일 입장객 집계 제외)
- 참관규모: 중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미국, 코스타리카, 한국 등
- 품 목: 종합품목 (가구·가구산업, 가정용품, 가죽·피혁·모피, 고무·플라스틱, 공예품, 디자인 그래픽, 문구·사무기기, 발명·특허·아이디어 산업, 보안·안전설비, 선물·판매용품, 섬유·직물 소비재, 스포츠·레저 용품, 시계·귀금속, 시청각, 식품·음료, 신발산업, 실내·외장식·인테리어, 완구·게임, 의료기기·약품·위생, 조명, 조선·보트, 취미·기호·DIY, 컴퓨터·PC·주변기기, 하드웨어·공구, 화장품·미용용품)

다) 주최자 정보

- 주 관: 파나마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s de panama)
- 담 당 자: Edgar Abrego R.(Marketing & Sales Coordinator)
- 주 소: P.O. Box 0816-07517, Panama5, Panama
- 전화번호: (507) 207-3434
- 팩스번호: (507) 227-0115
- 홈페이지: www.expocomer.com
- E- 메 일: expo@expocomer.com / eabrego@expocomer.com

2) 파나마건축박람회2012 (International Construction Fair(Capac expohabitat))

가) 전시회 정보

- 개최시기: 2012/09/12 ~ 2011/09/16
- 개최주기: 매년
- 개최규모: 17000s/m
- 개최국: 파나마
- 개최도시: 파나마시티
- 개최장소: Atlapa Convention Center

나) 전년도 개최내역

- 참가규모: 15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335 개 업체, 외국참가업체 15개 업체, 참관객수 30,000명
- 주요참가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스페인, 멕시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파나마 등
- 품 목: 건축. 건설. 빌딩, 교통, 냉난방, 보안.안전설비, 부동산

다) 주최자 정보

- 주 관: Camara Panameña de la Construcción (CAPAC, 파나마 건축협회)
- 담 당 자: Mrs. Arelis Ortega (Directora de Ferias) / Ms. Karina Fuentes
- 주 소: Calle Aquilino de la Guardia y Calle52, Area Bancaria diagonal al Hotel Ejecutivo, Ciudad de Panama, Republica de Panama
- 전화번호: (507) 265-2500
- 팩스번호: (507) 265-2571
- 홈페이지: <http://www.capacexpo.com/>
- E- 메 일: secretaria@capacexpo.com / eventos@capac.org / ferias@capac.org / asistferias@capac.org

라) 비고

- 매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파나마 Expocomer 다음으로 높은 지명도 유지
- 부스가 일찍 소진되므로 참가업체는 수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
- 한국 중장비 업체 다수 참가 중

3) 파나마물류박람회2012 (International Logistics Fair 2012, Expo Logistica)

□ 전시회 정보

- 개최시기: 2012/10/11 ~ 2012/10/12
- 개최주기: 매년
- 개 최 국: 파나마
- 개최도시: 파나마시티
- 개최장소: Atlapa Convention Center

□ 전년도 개최 내역

- 참가규모: 8개국, 개최국참가업체 150개업체, 외국참가업체 20개업체, 참가객수 10,000 명.
- 참관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 등
- 품 목: 운송수단, 통관서비스, 운송서비스, 창고시스템 등

□ 주최자 정보

- 주 관: 파나마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s de panama)
- 담 당 자: Edgar Abrego Rodriguez

- 주 소: P.O. Box 74 Zona 1, Panama, Republic of Panama
- 전화번호: (507) 207-3434
- 팩스번호: (507) 227-0115
- 홈페이지: www.expologistica.org
- E- 메 일: expologistica@panacamara.org

4) 파나마자동차전시회2012 (Panama Motor Show 2012)

□ 전시회 정보

- 개최시기: 2012/10월 중
- 개최주기: 매년
- 규 모: 4,000 sqm
- 개 최 국: 파나마
- 개최도시: 파나마시티
- 개최장소: Atlapa Convention Center

□ 전년도 개최 내역

- 참가규모: 5개국, 개최국참가업체 82개업체, 외국참가업체 15개업체, 참가객수 20,000명.
- 참관규모: 파나마
- 품 목: 자동차, 이륜차

□ 주최자 정보

- 주 관: 파나마자동차유통협회(Asociacion de Distribuidores de Automoviles de Panama)
- 담 당 자: Mrs. Angela Ubben
- 주 소: P.O. Box 0832-1271, WTC, Panama, Republic of Panama
- 전화번호: (507) 321-0215
- 팩스번호: (507) 321-0214
- E- 메 일: adap@psi.net.pa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파나마정부입찰포탈 : <http://www.panamacompra.gob.pa>
 - 파나마정부 주요 전자입찰 정부 입수 및 참가 사이트
- 파나마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pa/>
 - 파나마 소개
 - 헌법 및 각종 법률제도, 파나마 각 정부기관 웹사이트 안내
- 파나마 통상산업부: <http://www.mici.gob.pa/>
 - 파나마의 통상정책 및 산업 안내
- 파나마투자수출진흥공사(PROINVEX) : <http://proinvex.mici.gob.pa>
 - 파나마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 전담 정부기관(KOTRA 유사기관)
- 파나마 관세청: <http://www.ana.gob.pa/>
 - 파나마 관세율표 및 주요 수출입업체 수출입 통계 조회 가능
- 파나마 등기소: <http://www.registro-publico.gob.pa/>
 - 회원 가입 후 파나마 내 등록 부동산 및 법인 온라인 조회 가능
- 파나마 외무부: <http://www.mire.gob.pa/>
 - 파나마 해외공관, 국제외교관계 정보 및 비자
- 파나마 재정경제부: <http://www.mef.gob.pa/>
 - 파나마 재정부 업무안내 및 조세제도
- 파나마 공공사업부: <http://www.mop.gob.pa/>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관한 정보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 <http://www.colonfreezone.com/>
 - 콜론자유무역지대 투자 안내 및 운영 소개
 - 파나마 물가 및 전기, 상수도, 전화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
- 파나마감사원: <http://www.contraloria.gob.pa/>
 - 파나마감사원, 각종 수출입 통계 안내
 - 각종 경제동향, 사회경제지표 통계 안내
- 파나마운하청: <http://www.pancanal.com/>
 - 파나마운하 관리 및 운영 상황
 - 각종 입찰 정보 열람 가능
- 파나마관광청: <http://www.atp.gob.pa/>
 - 파나마의 관광자원 소개
 - 여행사, 항공편, 자동차렌트, 은행, 상가, 호텔, 식당 정보

- 파나마농목축개발부: <http://www.mida.gob.pa/>
 - 파나마정부 농목축개발부 조직, 임무
 - 파나마농목축 분야 정보
- 파나마 상공회의소: <http://www.panacamara.com/>
 - 파나마 경제 및 산업 관련 정보
- 파나마 산업협회: <http://www.industriales.org/>
 - 파나마 제조 및 수출업체 협회
 - 산업진흥책 소개
 - 경제, 산업 동향 분석
- 파나마종합박람회: <http://www.expocomer.com/>
 - 파나마종합박람회(Expocomer) 공식 홈페이지
 - 파나마상공회의소 주최 중남미 최대 종합전시회
- 파나마건축협회: <http://www.capacexpo.com/>
 - 파나마 건설 및 건축 분야 각종 통계, 보고서 등 정보 수록
 - 매년 열리는 파나마건축전시회(Capac Expohabitat) 정보 게재
- La Prensa (파나마 최대 일간지): <http://www.prensa.com/>
- El Panama America(파나마 주요 일간지): <http://www.padigital.com.pa/>
- El Siglo(파나마 주요 일간지): <http://www.elsiglo.com/>
- La Estrella de Panama(파나마 주요 일간지): <http://www.estrelladepanama.com/>
- Capital(파나마 온라인 주간경제지) : <http://panama.capitalfinanciero.com/>